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박 필 수
편집인 권 손 우 영
편집장 송 훈
외대신문사 (☎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 (☎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85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 규 행

제494호 〈주간〉 THE OF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6월 7일 (화요일)

「6·10 남북학생회담」 3일 앞으로

회담 성사 위한 집회 연일 개최, 9·10일 총파업 예정

◇지난 6월3일 (금)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6·10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전진대회 모습.

「6·10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서울지역총학생회 연합」 (이하 「서총연」)의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심포지움및 결의대회등이 연일 개최되었다.

지난 5월31일 (화) 오후4시 한양대학생회관 앞에서는 「서총연」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조통특위)연합」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본교생 1백여명을 비롯한 2천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조통특위연합」 위원장을 맡은 김중기군 (서울대 · 철학4) 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공동을 립픽쟁취와 6·10남북학생회담 성사 △미제의 침략적 군사훈련 철폐,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 철폐, 남북상호감군을 위한 투쟁△국가보안법철폐,학문사상의 자유쟁취 △반공·반북한 모략소동 분쇄를 위해 투쟁해 가자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1시간30여분동안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6월2일(목) 오후 2시 본교 교수회의실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서총련」 산하 통일학생주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움은 4백여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체사상과 김일성, 북한현대사, 통일방안 등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다음날인 6월3일(금) 오후 2시30분에는 1백50여명의 학생이 모여 출정식을 갖고 경희대에서 개최되는 「6·10회담 성사를 위한 서총연 전진대회」 및 「6·10남북청년학생회담 성취를 위한 결의대회」 에 도보로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지역 15개대학 4천여명의 학생이 모인가운데 총학생회장단 인사, 학생대표단 인사가 있었으며 집회가 끝난후 「통일열원 대학생 노래 한마당」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또 6월6일 (월) 오후2시 통일광장 (구 삼민광장) 에서는 「6·10회담 실질성사를 위한 애국회대 실천대회」 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조통특위 위원장 김일군 (동양·아랍어4) 은 『조국통일의 교두보가 될 6·10남북학생회담의 성사를 위해 총궐기투쟁을 벌여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6월10일 열릴 예정인 「남북학생체육회담」에 본교에서는 서울캠퍼스 조통특위위원장 김일군이 실무대표로 참석하게 되며 회담전날인 9일 (목) 부터는 과총회를 통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8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및 접수를 6월2일 (목) 부터 30일 (목) 까지 서울·용인캠퍼스 각 학과장실에서 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장학금수혜지원서 (소정양식) , 재산세 과세증명서 각1부씩, 무주택자인 경우는 가옥주 대장과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각1부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미연합사 방문 구본엽 연행

사마란치와의 면담요구한 11명도

지난6월4일(토)오후1시35분경 관문전출입허가를 받기위해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용인캠퍼스 「조통특위」 위원장구본엽군 (서문·영어4·휴학) 등 6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

이들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6월10일 당일 오후3시부터 관문점사용허가, 회담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제공, 회담시 많은 학생들의 참관등을 요구했다.

또한, 6월2일(목)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사마란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신라호텔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던 윤설현군 (동양·일어3) 등 본교생 11명을 포함한 서강대, 한양대생등 68명이 전원 연행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오전 8시경 사마란치위원장이 투숙하고 있는 신라호텔앞에서 「민족화해 꽃피울 공동올림픽 쟁취하자」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등의 피켓과 플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시위를 벌였다.

이어, 학생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올림픽공동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소집 ▲남북한 올림픽관계 대표자들의 공개토론회주선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증강배치와 미·일 합동군사훈련중지등을 주장하며 사마란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전원 연행당했으며 이들중 본교생 11명은 4일 (토) 모두 풀려났다.

대학원 신방과 농성 장기화

"새로운분야 심사할교수 확보" 요구

논문지도및 심사의 외부교수참여를 요구하며 지난5월11일 (수) 수업거부에 들어갔던 대학원 신방과 학생들은 교수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따라 농성을 계속하고있다.

학생들은 『정치경제학적인 「비판커뮤니케이션」 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과목을 논문으로 제출했을때 이를 심사할 교수가없다』 며 『이를위해 외부의 교수가 참여해 논문심사를 하는것은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현재 신방과학생 15명중 8명의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점거, 농성중에 있는데 지난 6월3일 (금) 에는 학교측에 자퇴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재단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모현학사」 2학기 사생모집

용인캠퍼스 기숙사 「모현학사」는 88학년도 2학기 사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2·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며 학사생은 6월1일 (수) 부터 6월10일 (금) 까지, 신규입사생은 6월1일부터 15일 (수) 까지 원서를 모현학사 운영과에 접수해야한다.

알 림

본보는 제494호 (6월7일자) 를 끝으로 이번 1학기 신문을 종간 합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제495호는 8월23일자로 발행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외 대 학 보

「용·성지역 총학생회 연합회」 출범

「조통특위」도 발족, "조국통일위한 투쟁" 선언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회」(이하용·성총련) 출범식 및 6·10남북한 청년학생실무회담을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 가 지난 5월31일(화) 오후2시 어문학관앞 해방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본교생 1백50여명을 비롯한 명지대, 경희대(수원캠퍼스), 경원대등 용인·성남지구 6개대학교 4백여명이 참석, 진행되었는데 용·성총련 외장인 본교 용인총학생회장 정철주군 (서문·독어3) 은 출범선언문을 통해「용·성총련은 4만 용인·성남지구 청년학생의 구심체로서 식민지 분단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해 시대의 어둠을 불사르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앞으로 ▲반미자주 반독재민주 조국통일투쟁 ▲용인·성남지구 학우들의 민주적 제권리확보와 상호교류 ▲기층민중의 생존권 쟁취등을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월에서 통일로 총진군하자 백만학도여」 란 기치로 진행된 2부 결의대회에서는 용·성총련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식이 있었다. 이날 특별위원회 외장으로 선출된 구본엽군(서문, 영어4휴학)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남과북이 얼싸안고 어우러질 날을 앞당기는 투쟁은 이땅의 청년학도 앞에 제기된 시대적 사명』 이라며 『남북청년학생 체육대회와 국토순례행진 제안을 실현시켜 조국통일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용인고시반 농성 일단락

학교측, 요구조건 대부분 수락

지난 5월26일 (목) 부터 서울캠퍼스 고시반과의 통등한 대우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한때 전기·교환실까지 점거하기도 했던 용인캠퍼스 고시반원 18명은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락함에 따라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이는 6월4일(토) 오전 8시30분 서울캠퍼스 교수회의실에서 가진 교무회의에서 고시반원 40명으로의 증원을 비롯한 목공소 이전, 고시반 증축, 예산증액등을 학교측이 모두 받아들일것을 약속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학교측에서 약속한 사항은 2학기부터 실행된다.

고전 기타반 「졸업연주회」

용인캠퍼스 고전기타반 「한시울」 주최 「제1회 졸업연주회」 가 오는 6월7일 (화) 오후5시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류엣·송로, 4중주로 나뉘어 비발디의 사계절등 총17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용인, 농활 경기도 평택에서

7월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진행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농촌활동 준비위원회」 (이하 「농준위」)는 하계농활을 경기도 평택에서 오는 7월1일 (금)부터 11일 (월) 까지 10박11일동안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농준위」는 지난 5월27일 (금)부학생회장 안승남군 (사회·경제3) 을 「농준위」 위원장으로 5인의 「농준위」 위원을 구성하고 농활자료발간, 선전·홍보작업등을 해왔으며 6월23일 (목) 오후2시에는 서울캠퍼스 대학원로비에서 농촌활동참가자 1차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농활참가신청서는 「농준위」 실 (학생회관 3층) 과 각 단대학생회실에서 발고있다.

한주소묘

▲「6·10 남북학생회담」 원천봉쇄 한다고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보통사람들 행위
▲최근 구속자 계속 증가
—양심수 석방논의+구속자 증가=?
▲본보 1학기 종간(終刊)
—국필 (曲筆) 을 거부한 지난 1학기

여름 방학중 학사일정

▲6월29일 제1학기 추가시험
▲7월14일 87후기 졸업사정회의
▲8월12일~20일 제2학기 복학·휴학원서 접수
16일~17일 제1학기 성적확인
16일~20일 제2학기 등록
22일 제2학기 개강

외대학술상 논문 마감 연기

제6회 「외대학술상」 논문 현상 모집의 원고마감일이 오는 8월15일(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용모해주신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보다 많은 외대생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외 대 학 보

자대기련, 비상총회 가져

6·10회담취재를 위한 기자단구성

「자유언론실천 대학신문기자 연합회 (이하 자대기련) 비상총회및 대동제」 가 지난 6월5일 (일) 오후2시 서울산업대 노천광장에서 열렸다.

26개대 4백여명의 대학신문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는 각사소개, 사업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자대기련의장인 송훈준 (본보 편집장) 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대기련에 소속되어 있는 23명으로 구성된 「6·10남북학생회담 취재를 위한 공동기자단」 은 남북청년학생들의 하나됨을 취재할 것』 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신문기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이땅의 자주화를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워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기마전, 줄다리기등의 대동제가 진행되었다.

학생대표단과 기자회견

자유언론실천 대학신문 기자연합회(이하 「자대기련」)산하 「6·10남북학생회담취재를 위한 공동기자단」16명은 지난 6월4일(토)새벽3시 연대 총학실에서 6·10남북학생회담 「13인 학생대표단」과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련기사 4면>

죄인 아닌 죄인 양심수

▲양심에따라 행동했다하여 투옥되야 하는 죄인 아닌 죄인 양심수.

분단과 독재의 모순속에서 생겨날수밖에 없었던「양심수」라는 단어는 유신이후 20년이 흐른 지금에도 시사어(時事語)가 돼버린채 선진조국(?)의 그늘속에 암울히 존재하고 있다.

민주화조치의 일환이라 일컬던 제6공화국의 「2·27석방」이후에도 1백50여명의 구속자와 2백명이 넘는 수배자가 새로이 생겨났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석방대상 양심수의 숫자를 5백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천명이 더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한조각 양심을 부여안고 살고자 했던 이들의 가야할 곳이 어두운 감방 한 구석일 수 밖에 없는 이땅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4자회담에서 현 정권 담당자는 양심수석방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당총재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다. 그러나 방화, 폭력행위등 국법질서를 전면파괴한 사람까지 양심수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이말은 양심수 석방 요구가 야당총재의 뜻이고 석방조치는 자신의 아량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함을 뜻할것이다.

▲개전의 정이니, 선별가석방이니 운운하는 권위적 발상에 한치의 변화도 없는 저들에게 양심수의 전원석방은 어쩌보면 무리한 요구일수도 있다.

또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몇번 논의하다가 적당히 타협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노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양심수석방의 문제가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찾기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법과 양심의 길이 일치하길 바라는 국민모두의 간절한 요구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민족적, 시대적 모순에 의한 희생의 계속됨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민주화 반대편 벼랑으로 달려가는 행위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저들이 민주를 조금이라도 갈망하고, 자신들의 표현대로 민주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민주화를 주장하다 갇힌 이들을 그대로 둔채 민주를 논할 수는 없지않은가 말이다.

▲양심수의전원석방과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조치는 더 이상의 희생을 낳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실현을 위한 절대명제이며 최우선 과제임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렇기에 그 일련의 조치가 「시혜」 나 「관용」 의 차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사죄로써 협해져야됨을 깨달았으면 한다. 흉친 흘전을 되돌려 주면서 생색내려는 파렴치한 도둑의 마음으로 「양심수 석방」을 논하는것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원유헌>

"未來속에 남아있는 可能性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未來속에 남아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로버트. 브라우닝 詩人은
노래하였읍니다.

大學의 價値는 學問을 배우고 연구하며, 이를 실생활속에 적용시킴으로써
내일의 世界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서 찾을 수 있읍니다.

하여, 大學人에게 주어진 한정된 時間은 비록 現在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大學人을 아끼는 것은, 大學人이야 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것,
未來속에 남아있는 무한한 可能性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낙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충치하나 뽑는 일에도, 뙤약볕 아래서의 서툰 삽질
한번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소중한 내일에의 可能性을 再確認하는 값진
여름방학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浦項製鐵은 企業의 利益만을 追求하는 會社가 아닙니다.
浦項製鐵은 다음 世代의 幸福과 다음 世紀의 繁榮을
준비하는 國民의 企業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LTD.

상반기 민민운동 평가와 향후 전망

김 민 영
〈민주쟁취 국민운동 서울본부간사〉

Ⅰ. 들어가는 말

역사적인 6·10남북학생회담을 며칠앞둔 오늘의 정세는 실로 엄중하다. 조성만 통일열사와 열혈청년한도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해 주동적으로 맞이한 오늘의 정세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있어 일대 고양을 예고하고 있으며,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단을 가르는 거대한 한판 격돌을 부르고 있다.

이런 상황아래서 88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투쟁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반기 투쟁에서 큰 영역을 차지했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한 조국통일운동의 성과와 오류가 실천적으로 명백히 검증되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지난 3월이후 진행되었던 민족민주운동의 흐름을 투쟁의 기본원칙에 근거해 서술적으로 되짚어보고 그 토대하에 현재 맞고있는 정국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보다 치밀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Ⅱ. 투쟁평가의 기본원칙

한시기의 투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의 근거와 기준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추진하는데 그간 많은 오류와 우여곡절로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게된 것도 모두 투쟁의 근본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또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념적으로 흘러 구체적 실천력으로 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투쟁과 그평가의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첫째, 대중노선에 관한 것으로서 투쟁이 대중자신의 것으로 될 수있도록 구체적인점을 형성해 내기위해 노력하며, 대중이 쉽게 전선으로 인입, 동원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와 요구, 지향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문제이다.

▲5월투쟁의 한계와 오류는 6·10남북학생회담 추진문제를 정점으로 그 성과물과 함께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리라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5월19일 고(故) 조성만열사 시청앞 노제광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시기의 투쟁이 전략적 요구와 큰 기간의 전술목표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영웅적인 투쟁이라 할지라도 주체의 준비정도에 대한 타산과 장기적 전망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좌우경 편향을 낳기 마련이다.

현시기가 전략적으로는 변혁의 주체적 역량을 실속있게 준비시켜나가야하는 시기이고 또 올해 민족민주운동의목표가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노태우정권의 취약한기반을 더한층 흔들어 내어 향후 반미·반군정투쟁의 유력한 교두보를 확보해내고 올림픽을 계기로 민족대단결의 기운을한껏 높이는 것인 만큼 상반기투쟁평가는 그에 얼마나 충실했던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평가의 원칙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반제민족자주화의 문제가 얼마나 추진력있게 진행되었는가하는 것이다. 각종의 투쟁은 결국 외세를 몰아내고 이땅에 부강한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 최종목적으로 지향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상반기 투쟁을 통해 민족자주화의식이 얼마나 대중자신의 것으로 되었으며 또 개개의 투쟁이 얼마나 이에 잘 밑받침되어 나아갔는가를 우리는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 네번째는 비타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각투쟁이 얼마나 기본계급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민족해방운동의 주력군인 기층민중운동의 강화는 운동을 흔들림없이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 담보로 되며 운동의 제급적 성격을 명확히하는 시금석이다.

그러면 이상 네가지 기본원칙에 근거해 올해 상반기 민족민주운동의 성과와 오류를 간략히 검토해 보자.

Ⅲ. 상반기 투쟁 평가

우리국민은 12. 16대통령선거투쟁의 패배에도 좌절하지 않고 선거무효화투쟁, 2. 25 노태우집권저지투쟁등 반군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해갔다. 그리고 그것은 4월에 들어서서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민정당다수의석확보, 독재국회저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탄생된지 불과 2개월을 넘지않은 불안정한 노태우정권에 크나큰 타격을 가하는 일대전진을 이룩하면서 다시 투쟁의 5월금맞았다. 주지하듯이 5월정세는 광주항쟁 8주년과 6월국회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확인된 반군부독재 투쟁외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범국민적인 반미·반군정투쟁을 전개할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 되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전두환일파의 엄청난권력형 부정비리의 전모와 80년5월 참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책임자와 주모자를 심판하고 처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요구는 매우 강렬한 것이었고 이는 이를 선도해나갈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단합과 투쟁공간의 창출을 열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정국에 비추어볼때 민족민주운동은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것으로 평가 된다.

우선 민족민주운동은 준비된 선진대오의 전열을 하나로 망라하는 참신하고 튼튼한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해내는데 실패했다. 물론 4월 총선과정에서 만들어진 「반민정당 총선투쟁연합」(이하 총투련) 이나 5월의 「광주학살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 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그리고 6월4일 발족된[광주학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등으로 형식적이나마 단합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4월 총투련은 대통령선거투쟁이후 분열되었던 각운동단체가 거의 망라되어 건설되었지만 조직결성과정에서의 조급함과 형식주의로 인해 참가한 각 단체사이의 총선투쟁전술문제가 통일되지 못하고 이를 둘러싼 비생산적 논쟁으로 일관하여 실속있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대중과의 결합도 거의 이루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할수있다. 이러한 「일단 모이고보자」는 식의 무원칙한대동단결의 경험은 5월공동투쟁을 전개하기위한 초기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나 5월 공투위가 책임있고 신뢰받는 대중투쟁의 주체로서 굳게 자리잡는데 크나큰 장애로 작용했다.

한편 6월 진조위의 발족은 광주문제가 미국과 노태우정권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국민대중의 의혹과 원한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점에서 비록 그 시기성은 상실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 조직구성이 전국을 망라했고 4, 5월 과정의 오류를 평가, 반성하려는 일단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위 조직결성 과정에서도 드러난 문제이지만 활동작풍에 있어서 형세주의와 비대중적 투쟁양식으로 대중의 여동성을 유발로 내오지 못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나타났는데 예를들어 서명운동의 무분별한 남발과 몇번의 안일한 대중집회로 대중의 진출을 기대했던점등이 그것이다. 이는 대중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중을 투쟁의 주인으로 보지 못하는 사상적 문제와도 결부되는 것으로써 이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 세번째로 민주화투쟁과 자주화투쟁을 결합시키는데 있어서 광주학살 교사범, 독재정권의 배후조종자로서의 미국의 실체를 대중적 관심과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폭로하지 않고 몇번의 선도적 투쟁으로 이를 대신하려했던 오류와 함께, 민주화투쟁으로의 충분한 대중적 진출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이를 밀접히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함으로써 청년학생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국민대중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획득해 내지 못한 점을지적할수 있다.

실제 5월 초, 중반에 걸쳐 진행된 자주화투쟁은 당시 외세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수입개방문제나 군사비 부담문제등과도 결부되지 못하였고, 자주화투쟁의 전진에 대한 조급함으로 해서 대중투쟁을 추동할 보다 위력한 무기였던 전두환 일파와 노태우정권에 대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네번째로 평가해야 할 것은, 3월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어온 노동자대중들의 생존권투쟁에 관한 것이다.

전체 국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간 전국각처의 크고작은 사업장 단위에서 예년에 없었던 완강성과 지속성을 보이며 지금까지도 가열찬 임금인상, 민주노조사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정국의 긴장을 함상화시키는 거대한 잠재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천으로 굳세게 단련되어가고 있다. 이에대한 민주세력 전반의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지며 이점에서 최근의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피탈사건과 대한생명노조원 감금사건과 같은 비중있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을 주축으로 한 민주세력의 연대가 순발력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으로 학생운동과 애국적 종교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조국통일운동에 대해 간단히 평가해 보자.

조국통일운동이 가지는 의의는 민주화운동과 자주화운동의 장애물을 제거시키고 그 폭을 확대시켜 민족해방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튼튼히 해 주는데있으며 특히 한국변혁운동에서민족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담보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3~5월의 청년학생, 종교인등의 헌신적인 투쟁과 조성만열사의할 복투신으로 88년 통일운동을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쌓였다고 본다.

즉, 통일문제의 절박성, 공동올림픽개최의 문제등이 국민들사이에 광범하게 선전되고 문제제기 되면서 분단의식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조국통일운동은 일정정도의 오류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첫째, 아직도 청년학생을 제외하고서는 대중적 운동으로 되지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이유는 무엇보다도 광범한 대국민 의식화사업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적인 투쟁양식이 제시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올해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통일문제의 절박성,통일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매우 당위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수준에서 바로 전면적인 투쟁구호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세째로, 민족대단결의식과 함께 민족자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분단 원흉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전선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운동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면 분단의 원인으로서 외세문제가 총체적으로선전되고 제기되어야만 올바른침투와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투쟁의 한계와 오류들은 6·10남북학생회담추진운동을 정점으로 그성과물과함께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일단 여기서는 위에서 지적한 전반적인 투쟁평가에 기초해 향후 전망과 과제를 간략히 제기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Ⅳ. 향후 전망과 과제

향후 올림픽까지의 시기적계기로는 6·10, 6·18, 6·25, 6·26, 6·29, 7·4, 8·15, 그리고 입시국회개원등이 존재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은 우선, 6·10남북학생회담추진운동의 정

상반기 민민운동은 대중의 역동성 견인위한 통전구축 실패

학살·분단원흉 미국을 총체적으로 폭로, 배격하는 자주화 운동의 획기적 전환 이루어야

사설

「남북학생회담」 성사돼야 한다

—대(對)북한 접촉창구 다원화 발판으로

지난2일 정부가 정한모 문공장관을 통해 내놓은 「통일논의 개방」 방안 발표와 하루간격을 두고 공개된 이현재국무총리의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대북한 제의는 근자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는 6·10남북학생 판문점회담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만 하다.

85년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행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 공식적인 남북접촉은 침묵을 지켜왔고, 올해 1월, 3월 두차례에 걸쳐 북한측이 제의한 「남북한 연석회의」 또한 우리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던 기억이 있는만큼 근3년간을 단 한차례의 대화창구개선 시도없이 대북한 접촉에 무심해 오던 정부가 갑작스레 5공화국의 통일정책과 별반다름 바없는 계안을 했다는 사실에서 이번 6·3제의의 성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있다.

회담제의는 북한측의 서한 수취 거부로 인해 방송전파 송달형식에 그쳤기에 총리가 서한에서 밝힌 것처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한「제의」라기보다는 정부측의 일방적「선포」의 성격이 강하다. 더군다나 그간 북한측의 계속된 회담제의를 번번이 거부해 오던 정부가 이번 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 움직임을 예상 못했을리 만무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6·3제의의 본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최근들어 각계각층에서 들끓쳐럼 번지고 있는 통일논의의 활성을 지적할 수 있다. 10일 판문점에서 개최예정된 학생회담의 성사를 위해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 통일열원세력에 대한 거부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올림픽시기에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대북한 우월의 과시차원의 유아적 발상에 기인한다.

권국 이번 「고위당국자 회담」제의는 그 성사를 겨냥하는 순수목적을 가졌다기 보다는 전시효과와 6·10학생회담의 원천적 저지를 위한 일종의 경고협태로서 2중적 포석을 갖는다고 하겠다. 사실 2일 정문공장관의 통일논의 개방발언의 요지는 「대북한 제의 및 접촉창구의 정부단일화」 이었고, 이미 학생회담을 원천봉쇄하고, 관계된 실무대표와 실행위원들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기에 10일 판문점에서의 학생회담 성사는 낙관적이질 못하다.

물론 6.3발표의 내용중 「학생교류」 등 새로운 부분이 보이는것은 실로 신선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변주도의 대북한 접촉이 지속될 경우 이는 선언적 조항을 넘을 수가 없다. 한반도의 통일논의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그 주체의 문제이며, 주체는 전적으로 민간주도의 것이 되어야만 통일의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10일 개최예정인 학생회담은 결단코 성사되어야 한다. 이회담이 학생이라는 특정계층에, 또 체육회담이라는 영역에 국한되지만 분명 한반도통일을 위한 논의의 칫걸음이기에 우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더무기 이것이 학생들의 단순한 열정주의적 발상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10일 판문점에서 우리의 형제, 동족과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것이다.

피안의 향연

▲프랑스의 소설가 생택쥐페리는 그의 소설 「어린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막을 상상하긴 어렵지않다.

지평선에 갇혀있는 모래언덕과 성난 태양, 가끔 몇몇의 여행자가 고독의 궤적을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사막은 우리에게 죽음의 땅이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땅 어딘가에 여행자의 타는 목을 축여 줄 맑은 우물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상상은 갑자기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곤 한다.

▲그림자가 반드시 빛의 바깥에서 고이듯 꿈이나 희망의 메카니즘은「어둠」속에서 작동한다.

어둠은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억압과 착취의 구조이며 소수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희망은 모순구조에 대한 인식, 그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이 땅에 단 하나인 진실의 반향이고, 진실에의 믿음이다.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수렁으로 추락한 노컴 속에서도 저 까마득한 위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어둠」에 역행하는 「희망」의 자세인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뿌리내린 이땅은 사막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땅이었다.

소수의 가진자들은 썩은 독재의 심장에 기생하고 독재의 무리들은 외세의 발톱에 안주했다.

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상을 허가받지 못하고도 사막의 모래알보다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고, 반통일의 역적들은 성난 태양의 화살들을 쏘아댔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중이주인되는 세상을외치던 수많은 열사들은 이 땅의 설움을 아파하며 그렇게 스러져갔다.

▲끝없는 희망에의 노력과 외지는 이땅을 머이상 범들게 하지 않는다.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물줄기를 이루어내고 그 물줄기들이 거대한 물레방아를돌리는 힘으로 전화되듯 자주와 민주에의 믿음과 희망은 결국 통일의 물레방아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사막의 우물

사막의 어딘가에 우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처럼 이 부패의 세월을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에의 믿음과 노력으로 응서치 말자.

이미 우리는,절반은 이긴 셈이다. 〈명〉

2000年代를 향한 現代의 雄飛—

現代는 세계를 앞서가는 인재의 양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개발에 정진하고 있읍니다.

「경영을 앞서가는 교육」을 모토로 인재를 아끼고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現代—

現代는 2000년대의 세계시장에서 저력을 발휘할 인재를 키우는 일이 곧 기업과 국가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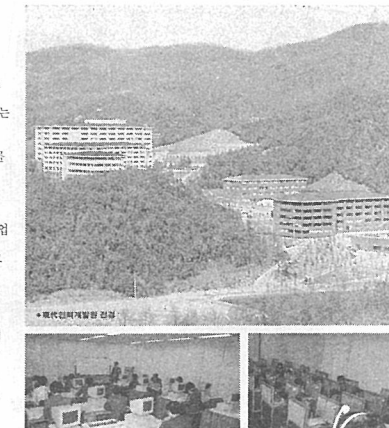
現代인력개발원이 중추가 되어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합리적인 추진력과 세계를 앞서가는 지성, 인품 통한 자기실현 등으로 全人的인 인재를 키우고 있읍니다.

또한 국내최대규모의 現代종합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4천여명의 우수 연구진을 확보, 자동차, 선박, 중전기에서부터 반도체, 통신 등 첨단 전자산업 분야, 그리고 생명공학, 우주공학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개발에서 앞서가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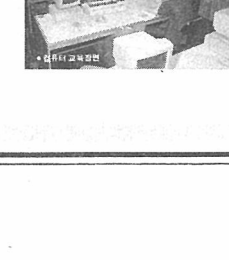
기업번영과 국가발전의 礎石인 인재를 아끼고 키우는 일에 더욱 더 노력하고 있는 現代—

오늘도 全人的인 인재양성과 세계속의 선진한국을 위한 연구개발에 정진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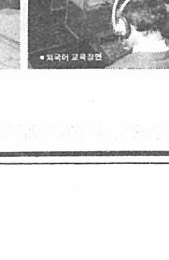
*現代의 인재양성 종합센터 현대개발원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해 입사후 일년간 회사 윤리관 기업문화 대입 교사전체 생활 회사여러 업무, 회계, 제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읍니다.



*現代인력개발원 전경



*컴퓨터 교육장면



*외국어 교육장면

추리하現代 세계의現代
現代

민족해방 그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9>

라 경 훈

〈기획번역가〉

Ⅰ. 대중조직화의 의의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려면 제국주의와 결탁세력에 대해 민족자주세력의 주체적 역량이 압도적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는 기본방도는 바로 민중을 의식화·조직화하는데 있다. 의식화된 조직대중이 수행하는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승리가 보장될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역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을 의식화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은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이고 동력이지만 대중이 저절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의식화되어야만 민족해방투쟁에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즉 민족적·계급적으로 각성되어서 주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을 완수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질때에만 투쟁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의식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각성하여서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조직적인 투쟁이 되지 못하면 산만성과 분산성을 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배세력의 공격앞에 각개격파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은 의식화될 뿐만 아니라 조직화될 때에만 대중적 힘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있다. 각계각층 민중이 조직적으로 결속해서 단결된 힘으로 싸울 때에만 지배세력에 맞서 싸울 강력한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다.사람들 개개인의 힘은 보잘 것없지만 그힘이 하나로 합쳐질때 큰 위력을 나타낸다.사람들이단합하면 그들의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루는 물질적 수단의 힘까지 합쳐져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력은 비할 바 없이 증대되는 것이다.

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고 단결은 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의 조직화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대중이 조직화되면 첫째, 각 계각층 민중이 하나의 역량으로 결속됨으로써 민족의 의지가 하나로 집약되고 민중의 육체적 힘과 물질적 수단을 동원·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제국주의와 결탁세력을 힘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투쟁조직을 결성하고 거기에 광범위한 민중을 결집하고 조직을 탄력성있는 활동적 조직으로 만드는 조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즉 대중조직화는 통일적지도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대중조직화는 투쟁대오의 조직과 규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배세력의 공세에 단합된 힘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한다.

Ⅱ. 대중조직화의 원칙

대중조직화는 광범한 대중을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역량으로 묶어내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대중을 실제로 광범히 조직화할 수 있는 원리와방법에 입각해야한다. 대중조직화에서 중요한 몇가지 원칙을 들어보겠다.

(1)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조직의 생명은 다수의 대중을 결속시키는데에 있다. 구성원자격에 엄격한 제한요건을 두는 전위조직이나 활동가조직과 달리 대중조직은 가장 넓은 범위의 대중을 조직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규모의 대중소모임이라면 비슷한 처지의 대중 속에 용이하게 확산될 수 있는 구성·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비교적 큰 규모의 공식적 대중단체라면 그 대중단체가 조직대상으로 하는 광범한 규모의 대중을 포괄·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중적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해야 한다는 원칙이 예를 들어 소모임에 아무나 끌어들여 숫자놀리기에만 급급한다거나 무턱대고 큰 규모의 대중단체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저서는 된다.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다.사람들 개개인의 힘은 보잘 것없지만 그힘이 하나로 합쳐질때 큰 위력을 나타낸다.사람들이단합하면 그들의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루는 물질적 수단의 힘까지 합쳐져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력은 비할 바 없이 증대되는 것이다.

(2)대중의 공통성에 기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대중은 여러계급·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상이한 여러 집단과 개개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조직 역시 다종다양하게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각각의 대중조직은 대중의 공통성에 기반하여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 공통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계층적 처지의 공통성이다. 동일한 이해관계는 대중들에게 강한 결속의 바탕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대중조직은 우선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는 계급·계층에 기반하여 구성될 때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 확대·강화될 수 있다.

대중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로 되는 것은 계급·계층 내에서 각급의 자주적 대중단체이다. 즉 노동조합, 농민조합, 학생회들이 대중의 계급·계층적 공통이해관계에 따른 대중의 결속단위가 되는 것이다.

대중단체뿐 아니라 작은 규모의 소모임 역시 구성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구성하여야만 최대의 결속을 기약할 수 있다. 처한 생활조건, 살아온 경험, 주된관심사, 욕구 등의 면에서 구성원 서로가 공유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클 때 그 조직은 원활하고 생명력있게 지속될 수 있다.

(3)대중의 특성과 의식수준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현실의 대중은 똑같은 상태와 동일한 의식수준을 지닌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상태와 의식수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조직으로 대중을 포괄해낼 수는 없으며, 특정상태의 대중만을 조직대상으로 놓고 다른 대중을 배제해 버리면 광범한 대중의 결속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대중조직은 대중이 놓여있는 구체적 상태와 특성에 맞게 탄력성있게 꾸려져야 한다. 일정한 조직형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결속되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조직형태와 수준이 대중 자신에 맞지 않으면 조직형태와 조직성원 양자 사이에 거리가 생겨 대중은 적극적 참발성을 발휘하지 못하며 조직은 빛지 않아 효지부지하게 되고 말 것이다.

대중의 특성과 의식수준에 맞게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원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선진적 자각대중은 역시 그 수준에 걸맞는 조직으로 결속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중심으로 조직해나간다는 것이 선진대중을 무조건 일반대중 속으로 흩어놓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선진대중은 자기 특성과 수준에 맞는 조직생활을 통해 대중활동과 자기단련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4)대중조직은 철저히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엄격한 철의 규율을 요구하는 전위조직·기간조직·활동가조직과는 달리 대중조직은 철저히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전위조직 (혹은 활동가조직)은 구성원들이 높은 의식과 각오에 바탕해서 규율과 지도에 복종할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성과 비밀성, 규율을 높은수준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조직은 이러한 엄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 협력을 함상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자면 대중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하고 대중 스스로가 결정해야한 한다.

만일 대중조직이 자체가 포괄하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중 스스로의 결정과 참여폭을 넓히지 않으면 다수의 대중은 그 조직과 실제로는 거리가 생겨나 껍데기뿐인 조직이 되고만다. 대중조직은 대중 자신의 조직으로 되어야만 자기 역할을 행할수 있다.

(5)대중조직은 원칙상 합법적방법과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는 대중조직은 원칙상 합법에 의거해야 한다. 이 원칙은 모든 조직이 합법이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비합법을 포기하는 것은 무장해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비합법과 반합법의 형태와 내용은 철저히 구분되여 주려져야한다는 점, 그리고 대중조직자체는 가능한한 합법적 위치형태를 견취·고수하여 가장광범한 대중과의 접촉면적을 확보한 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합법·비합법이 단순한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우기 지배세력이 허용한다는 수동적인 개념만도 아니다.

법률적합법이나 지배세력의 용인 여부보다 앞서는 기준은 앞도적 다수대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대중의 힘으로 보호·지속시켜낼 수있는가라는점이다. 즉 대중의 생활방식과 의식상태에 뿌리없이 밀착결합될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미 합법 (적어도 반합법)이 된다. 법률적 합법보다도 사회적 합법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합법은 대중의 생활과 의식속에 깊이 뿌리박음으로써 정착되어가는 역동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합법조직은 합법조직 속에 그대로 흡수되거나 혹은 반대로 합법조직을 비합법조직의 직접적 산하부속단체로 만들어버려서는 안된다. 비합법과 합법은 각각 자기 위치와 조직원리를 철저히 견지하면서 고도의 정교한 결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Ⅲ. 대중조직의 형태

대중조직은 분류하면 크게 소모임과 단체로 나눌 수 있다있. 물론은 목적을 명확히 곡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자연스러운 친분집단이다. 써클은 주로 구성원의 내적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운영형식을 지니는 소모임이다. 활동소모임은 일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과 규율을 가지고 구성되는 소모임이다.

써클은 인간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각 성원의 의식화과정을 원활하게 보장해낼 수 있으므로 대중조직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공개·비공개를 막론하고 써클을 많이 구성·운영해내는것은 대중조직활동의 기본이다.

친목써클, 문화써클, 학습써클 등을 대중 특성과 수준에 맞게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대중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초보적 결속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각각의 써클이 대중단체및 활동가조직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지 못하고 써클 중심으로 해서 대중단체와 활동가조직을 전횡하려는 써클주의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써클은 대중단체와 활동가조직에 인력을 배출하되 배출된 인력을 써클중심으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중단체는 대중단체자체의 조직원리에 활동가조직은 활동가조직 자체의 조직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각각 그 자체내에 공식적 지도부와 조직계통을 지녀야 한다.

요컨대 써클은 초보적 의식화와 대중결속 초보적 활동인력 배출을 통해 운동의 양적토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써클과 대중단체·활동가조직의 올바른 관계정립을통해 써클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써클주의를 극복해내는것이 필요하다. 써클을 없애는 것은 대중의식화의 주요단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한편 써클을 확장하거나 강화하여 대중단체와 활동가조직을 써클산하에 두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발상이며 대중단체와 활동가조직에 압적 해독으로 작용한다.

활동소모임은 크게 분류해보면 ①대중단체와 활동가조직의 구성·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를 준비·추진해나가는 준비추진모임, ②대중단체와 기층단위로서의 조직 단위로서 분반모임 ③활동가조직의 편제속에서 기층단위로서의 소조 (세포)와 각급 활동팀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활동소모임은 모임자체의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활동을 위해 구성되므로 객관적 책임성을 보장해내야 하며 정확하고 실질적인 위치·역할규정이 전제되여야 한다.

(2)대중단체

대중단체는 광범한 대중을 구성원으로하여 형성되므로 다수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전체대중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대중단체의 전형은 노동조합이나 학생회에서 보듯이 전체성원의 의사를 직접 모으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여 각급 의결기관을 구성하고, 의결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은 각급 위원회와 집행부서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된다. 즉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통해 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로 되는 것이다. 대중단체는 그 내부에 대중성원의 기층단위모임들을 다양한 형태로 조직해냄으로써 일반성원의 함상적이고 전면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중단체는 동급의 다른 대중단체와 결합하여 횡적 연락기구, 협의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급단체를 구성해내어 연합체로 결속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대중단체는 우선 계급 계층별 전국적 대중단체로 발전하며 결국 각 계급 계층의 전국단체는 내적 결속도가 고도화되어 사상적 정치적으로 통일되고 전국의 민족적 계급적 역량을 조직적으로 담보해내게 될 때에 민족해방운동 역량편성의 조직적 표현인 정선체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Ⅳ. 대중 조직화의 방법

(1)먼저 지도핵심을 준비하여야 한다

대중조직화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요구 되는 것은 사람을준비하는 것, 즉 지도핵심과 적극인자를 확보 양성하는 것이다.

대중단체는 아직 의식이 튼튼히 단련되지못한 대중이라하더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지도핵심과 적극인자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지도핵심은 ①확고한 사상·정치적입장을 지니고 ②대중을 조직해내고 올바른 전략전술을 수립·전개하며 사업과 투쟁을 지도할수있는 능력을 지니고 ③대중의 신뢰를 받을수있는 사람을 말함이다. 또한 대중속에서 앞장서서 실천하고 싸우면서 대중과 적극적으로결합해갈 적극인자 역시 튼튼히 준비되어져야한다.

(2)대중속에 깊이들어가야 한다

대중조직을 실제로 형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속에 들어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신뢰를 얻어야한다.

이러한 신뢰관계의 바탕위에서 대중의 의식수준에 맞게 정치적·조직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대중조직으로 묶어낼 수 있게 된다.

대중의 의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면 대중과 긴밀히 접촉·대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내려면 밀접한 인간관계의 바탕을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3)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나가야 한다

대중의 조직화는 일상적 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 자신이 정치적·계급적으로 각성하여 단결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야만 조직에 결속되고 투쟁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대중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정치사상적 활동을 앞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4)대중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한다

대중은 투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만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 결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대중투쟁은 대중에게 조직과 단결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학교이고 그 자체가 대중조직을 낳는 실천적 무대로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통해서 대중조직 건설을 촉진하는 것은 대중조직화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5)조직성원,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성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사상과 활동의 질을 높여가야한다. 교양이 강화되어야 그 조직은 힘있는 조직으로 될 수있다. 교양은 여러 형식 즉 대회, 회의, 학습, 토론을통해 성원의 의식과 자질을 높여야 하며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실천투쟁에 적극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매개 성원이 적극인자, 지도핵심으로 자라나도록 해야한다.

Ⅴ. 맺음말

운동의 승리는 대중의 단결된 힘으로만 가능하며, 단결은 조직을 매개로해서만 항상화, 주체화될수있다.

운동은 곧 조직이며 따라서 운동가는 조직가여야 한다.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서로 맞물려 선수치로 유용하게 하는 것이 운동가에 여된 임무이다. 대중조직화를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쌓음으로써 민족해방은 동의 역량은 눈부시게 성장해나가게 된 것이다. 어느 대중운동가의 말을 토 글을 마친다. 『조직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

글싣는 차례

1. 현대화·변혁이념<상·하>
2. 세계변혁과 민족해방운동
3. 현대제국주의와 한국사회
4. 민족해방운동의 성격과 임무
5. 민족해방운동의 대상과 동력
6.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체계
7. 대중의식화론
8. 대중조직화론
9. 민족해방운동 발전사
10. 민족해방운동의 이행경로

광범위한 대중을 주체역량으로 묶어세우는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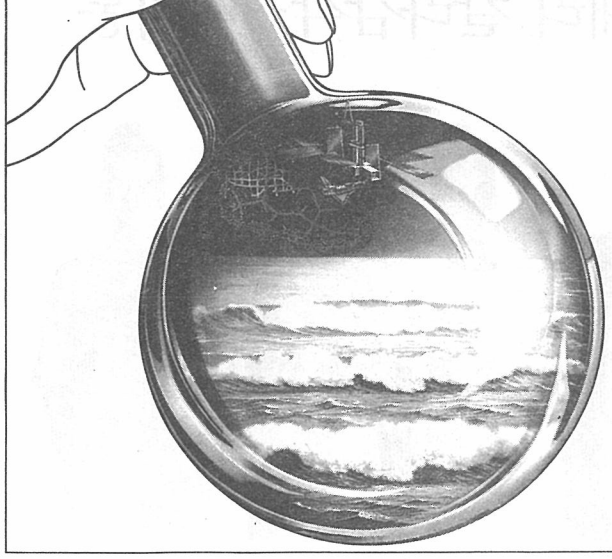
대중조직화론

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고 단결은 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수 있기 때문에 대중의 조직화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대중조직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는 계급,계층에 기반하여 구성될때 대중속에 뿌리를 내려 확대·강화될수 있다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럭키가 이끄는 첨단화학의 물결—

新物質·新素材·新資源

"新物質의 창조"

무공해농약은 럭키가 가장 값진 결실입니다.
다음 복음은 부작용 없는 제3세대 항생제—
럭키는 고부가가치의 유일한 신물질을 농하이 인류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新素材의 혁신"

종류로 다양한 럭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하는 고기능 신소재입니다.
방탄조끼, 항공기, 우주선에도 쓰이는 첨단신소재!
럭키는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新資源의 개발"

럭키의 화학기술과 유전공학의 만남은
동물성장 촉진제를 탄생시켰읍니다.
럭키는 이제, 새로운 식량자원과 미래의
대체에너지를 내다보고 있읍니다.

럭키

◇「6·10 남북학생회담」관련…「13인 학생대표단」 공동기자회견

분단 44년의 장벽은 이제 무너지려는가

▲6·10회담은 어떠한 논의과정속에서 발의되었는가.

—분단44년을 겪으며 성장해온 현실적·실천적 통일의지가 김중기군의 제안과 함께 전대협 차원으로 외화한 것이다. 김중기군의 제안이후 각 대학에서 지지성명서 발표와 이에 대해 전대협산하 각 대학이 3차의 지구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하여 이 제의의 수용에 대해논의하였다. 4월말 경북대에서 개최된 제1차지구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공개서한에 대한전대협 차원의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통일운동의 당위성, 투쟁방향 등을 공유한 이 자리를 기반으로 5월14일 고대에서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5월28일 열린 제2차 지구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고대집회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제육·문화·이산가족교류등을 시발로 지속적·항구적 교류를 결의하였다.

제3차 결의회의에서는 실무위원 13인의 구성세의와 그 구체적 논의로 각 지구별 2인이 결정되었다. 이어 계속된 연석회의를 통해 12인을 구성하고 김중기군을 포함하는 13인의 실무단과 22인의 위원이 선정되었다.

6·10결사를 위한조국의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통위)구성은 1차회의 이후 계속 제의된 것이었다.

▲남북학생회담이 조국통일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과 군부독재세력은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투쟁의 한국절하로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 하고있다. 이는 반쪽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통일논의의 주체인 애국민주세력으로 환원, 민간차원의 대중적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위해 6·10남북학생회담이 제기된 것이다. 그 밑바탕은 이 회담은 첫째, 군부독재와 반통일세력을 남북교류에서 고립시키고 둘째, 통일논의의 결계와, 민중적 차원에서의 통일논의를 진행시키며 세째, 공동올림픽 실현에 대한 대중적 확신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6·10회담이 공동올림픽 쟁취투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88년도 학생운동의 과제를 노태우정권타도,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을때 이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낼 수 있는 것은 공동올림픽 쟁취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국통일 투쟁과정에 있어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세계평화의 기운을 한반도에 실현시켜야 함에서도 짚을 수 있다. 따라서 6·10회담의 쟁취는 조국통일의 교두보 장악으로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며 반공이데올로기나 왜곡된 북한의식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대표 13인의 구성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각지역별로 총학생회장모임인 「전대협」 의장단에서 13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6개지구에서 4차례의 제안과 검토를 거쳐 5월25일 전북대에서 열린 3차 전대협의장단회의에서 지구별로 검토된 대표단을 각 지역별로 2인씩 구성하여 각 지역별집회들을 통해 참가인원, 단체 그리고 대중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참가인원은 대략 5만~1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야 67개의 단체와 전대협등에서 참가하며 청년학생이 주체가 된다.

대중을 이끌어가는 조직활동은 각 대학별 총학생회장, 간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지방의 학생들은 9일의 집회에 학교버스를이용, 서울에 상경하고 그 버스를 이용해 입진각으로 갈 예정이다. 그밖에 원하는 학생들 모두 입진각까지 동승, 참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측 입장과 북한학생들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및 상황은 어떠한가.

—정보의 유통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관계로 남짜별·시간별 입장변화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5·17회신(2차답신)을 통해 북한청년학생들 역시 우리측과 마찬가지로 학생위원회의 결의대회, 토론회등을 개최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에 찬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회담당일 (6월10일) 에 12인의 실무위원이 파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재일대한거류민단과의 연계관계및 제3국에서의 개최용의는…

—지난6월2일 재일본 대한거류민단 학생들과 조총련 학생들이 결의한 공동올림픽쟁취 외지와 6·10 실무회담에 참여할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 내용은 재일 (在日) 학생연합 (민단·조총련) 의 적극적 지지 표명과 국토종단순례행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현재로는 제3국회담은 고려치 않고있다. 왜냐하면 이번 6·10 실무회담은 꼭 쟁취할 것이며 이를위해 1백만 청년학생들이 결사항전의 각오로 총매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어떠한 사안으로 북한 학생들과 대화에 임할 것인가.

—회담의 주요 안건은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 (8/1~8/14→8/15대동제) 과 「민족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 학생 체육대회」(9/15~9/17), 이산가족문제, 청년학생들의 상시적 문화교류, 공동올림픽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안건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상호간 모색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다.

▲관주학살 진상규명, 광주민중항쟁 계승등 5월투쟁속에서 그힘의 축적을 토대로 6·10회담 쟁취투쟁으로 전개되는 과정속에서 단절적인 모습이 일정부분 드러나지 않았는가.

—투쟁의 매개를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한채 6·10회담 쟁취투쟁으로 쉽게 「매몰」 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5월투쟁은 현시점에서는 분명히 자주·민주·통일의 대원칙속에서 평가되어야하며 금년 9월의 올림픽을 계기로 인해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역량축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5월투쟁은 80년 5월의 의미와 조국통일투쟁의 접맥을 통하여 분단의식극복, 북한바로알기, KAL기 진상파악등을 통한 올바른 통일관과 광주학살 책임자처단, 반미투쟁확산으로 계승시켜야 하며, 이의 외화된 형태가 바로 6·10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본다.

▲4·19직후 제기되었던 통일논의와 현통일논의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두 시대의 차별성은 객관적 정세의 파악, 통일논의 주체의 역량을 실질으로써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 주체역량의 측면에서 4·19당시는 청년학생을 제외한타운동역량이미비했으나 지속된 투쟁과정속에서 변혁운동의 주체에 대한 각인과 전반적인 운동역량의 성장속에서 조직강화, 반통일세력에 대한 인식심화등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정부측의 통일논의에 대한 정부 일원화 발표와 야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통일논의의 정부일원화는 정부가 통일논의를 독점함으로써 민중적 통일논의를 무마시키려는 반민족적 처사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조국통일은 청년학생들 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고 전 민중적 차원, 즉 범애국민주세력이 참여하는 회담으로 불을 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측은 회담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구속하는 제반악법을 철폐해야하며 야당과 재야는 이번 회담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함께 관문점 사용을 방해하는 미제의 본질을 일반 국민들에게 폭로해 나가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부측이 자행하는 반통일정책의 즉각적인 폐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대중적 노선에 입각하여 「북한 바로알기」 부터 시작하여 통일을 관념적으로 사고하는 수준을 벗어나 당위적이고 실천적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화 작업을 벌여 나가야하며, 선물보내기·사진주고받기등의 구체적 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원화된 통일논의를 민간차원으로 끌어내 민중 모두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국시 정취, 북한의 모든 정보공개 그리고 미군과 핵기지 철수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할것이다.

▲남북 청년학생등 학생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논의들을 전 민중적 차원으로 확산시킬 구체적 방안은 있는가.

—조국통일을 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통일의 기득권을 미제와 독재정권이 독점하고있는 음모를 폭로해내고 통일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산, 민중동일전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국통일의 시발점이될 이산가족찾기운동을 벌여 남북한 가족의 생사확인, 상호서신교환 교류및 방문을 추진시키는일이다.

현재 6·10회담성사후 실질적으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벌일 예정으로 있으며, 「서총련」에 소속된 각 대학의 총학생회에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이산가족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남북한 학술·예술·체육단체와 연계, 상호교류를 실현시켜 노동자·농민의 직접적 교류를 갖을 것이다.

현재 재야민주단체에서 입고있는 남북교류, 이산가족찾기운동의 확산, 공개서안등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방안제시는 이러한 인식속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자대기련에서 제기하는「학생기자 교류」 안건의 채택여부에 관하여 언급해달라.

—솔직히 말하자면 실무진내에서 미처 고려치 못했다. 그러나, 4·19이후의 학생회담의 논의 주제속에 「학생기자교류」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신문기자들간의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들을 고려해 볼때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고 판단된다. 추후 (6/4이후) 논의 과정에서 채택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시간적인 문제가 일정정도 장애요소로대두될 것이다.

▲13인 공동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우리의 통일논의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나타난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기저로 하여 구체적 통일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분단 44년 동안 남북의 이데올로기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진정한 통일방안은 가로막혀 왔다. 남북한의 이질감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민족화해, 민족대단결의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통일의 장애요인을, 즉 미제의 한반도의 대한 대소전진기지화, 핵무기 배치등의 제반 장애물을 제거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촉진의 화해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번 회담이 불쇄, 무산될 경우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준비위」를 구성, 공동개최를 위해서명운동을 먼저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8월1일부터 14일까지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체육대회개최와 관련된 주체적 사안협의, 공동올림픽개최등을 안건으로 하는 남북학생통일회담을 8월15일 관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제기할 것이다.

이날은 청년학생 차원을 넘어서 「남북민족대표단 통일회담」도 함께 열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볼 것이다. 그러나, 청년학생에게 요구되는 조국통일운동은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투쟁에 선봉으로 나서 제반 사회안체를 뚜어내는 것과 자주적 교류의 모범을 보여주는 활동과—성사시키는 차원으로까지—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이러한 조국통일운동은 선언적인 것으로 머물수 밖에 없다.

〈기록·정리 : 공동기자단〉

▲사진은 지난6월4일 새벽3시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서 남북학생회담 대표단 13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래를 부르는 장면. 연합

6·10회담은 반공이데올로기, 왜곡된 북한의식을 극복하는 조국통일의 초석

애국민주세력의 대중적 통일논의를 활성화시켜야

참 석 자

▲남북학생 회담을 위한 남한준비위원회 13인 학생대표단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 산하「남북학생회담 취재를 위한 공동기자단」

▲일시 : 1988년 6월 4일 새벽3시

▲장소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외대만평

지금의 다리들…

가자의 눈

「학내민주화」요구와 「휴교령」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은 불의에 참가하는 정의로운 인간들이 될 것을 가르쳤을니다. 그렇기에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6월3일(금) 동두천여상 학생8백여명은 동두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학원비리척결」과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연좌시위를 벌였다.

동두천여상 학생들은 그동안 학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는 「신입생 부정입학, 각종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될 경우 나오는 출연료 착복, 전 교직원지도교사에 의한 학생추행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생회구성의 자율화 보장」 등 17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것이 관철될때까지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연 3일째 학내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이고있다.

학생들의 이같은 요구와 행동에 대해 교사들은 『이번 소요는 주변적 성장기에 위치한 학생들이 노사분규나 대학가 시위등을 무분별하게 모방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수습되어지리라 본다』며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집회때 학생들이 부르는 「농민가」와 「해방가」등을 들으며 『외부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며 색안경을 끼고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는 사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차 사회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치관과 지식을 가르치고 일상생활을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여상교사들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관자적 입장에서 관망하고 있다.

또한 전체집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은 『요즈음 노사분규가 심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판국에 여러분이 이같이 학내문제로 시위를 하는것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일은 교육행정관에 맡기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얼토(?)를 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측은 학내비리와 부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무시한채 이날 오후 「학내사태가 수습되고 학교기능이 정상화될때까지」 무기한 휴업하겠다는 「휴교령」을 내렸다.

「교내 제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휴교령」이라는 학교측의 극단적 행위로 처리되는 작금의 세태는 분명 동두천여상만이 아닌, 제도교육이 곪을대로 곪은 학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름은 터져야할 때인듯하다.

<국수경 기자>

(주)에스에치 유통

UNITED COLORS OF BENETTON
benetton

젊음의 마음속엔 이태리 칼라감각—베네통

독재타도의 6월항쟁, 다시 살아나 조국통일로 진군하라!

추 승 연
〈자유언론사 기자〉

6월 민주대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1. 글을시작하며

87년 6월10일, 88년 6월10일. 정국은 남북학생회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국통일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거의없는 청년학생들의 직접적인 남북한 교류제의는 그동안 통일문제를「위기의식조장」「회유」등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한 군사정권에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군사정부는 이를 저지키 위한 미봉책으로 3일「남북고위당직자회담」을 제의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원천봉쇄로 통일논의의 관법위한 민중적 확산을 차단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정치정세속에서 조국분단의 근원적 책임을 지고있는 미국은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을 「현정국과 무관한 자」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일 남북학생회담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대표 5명이 판문점출입허가를 한미연합사에 요청하자 주한미사령부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방문을 허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당국만이 할 수 있기때문에 학생들이 판문점방문을원한다면 한국정부에 신청해야한다』며 모든 책임을 군사정권에 떠맡기고 있다. 이는 다시한번 주한미군이 책임없는 권한만을 틀어쥐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운동사의 커다란 분수령이었던 6·10민주항쟁이 꼭 1년이 되는날 남북학생회담 날짜가 잡힌것은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6월민주항쟁은 전국규모로 연인원 4~5백만의 국민대중이 참여하여 무려 19일동안 지속된 전국이래 유례없는 민주대장정이었다.

이후 한국사회는 대통령선거, 13대국회의원총선을 치렀으며 헌시기는 지난해 6월민주항쟁의 깃발을 올렸던 6월10일 바로 그날에있을 남북학생회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정국과 결코 무관할수없는 6월민주항쟁을 되집어봄은 지난해 빚어졌던오류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외미있는 일이라 할수있다.

2. 6월항쟁의배경

전두환 군사정권은 86년아시안 게임이 끝나자 강력한 폴리력을 바탕으로 야당과 재야민민세력을 탄압, 분리시켜 내각제개헌을통해 자신의 영구집권을 노렸다. 이에따라 전국대사태에서 무려 1,274명이라는 사상유례가없는 구속을 강행했는가하면 당시 재야민민세력의통일적거점이었던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강제해산시켰던 것이다. 결국 정국은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게되었고, 보수 대연합을 통한 야당과 민민세력의 섬멸이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은 이민우 당시 신민당총재를 내세워 내각제 합의를 종용했으나 양김씨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87년 4월8일 양김씨가 신민당에서 분당, 신당창당을 선언하자 전두환 군사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헌시기의 중대성과 정치일정의 촉박함을 고려할때 언제까지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을 기다릴 수 없다」는 4·13호헌조치를 발표함으써 범국민적으로 뜨겁게 일던 민주개헌의 열원을 봉쇄시켜버렸다. 훗날 어느 정부여당인사의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개헌논의를 금지시킨 것은 정치적 악수(惡手)였다』는 말은 단순한 군사정권의 실수뿐만이 아닌 그렇게 성급하게 처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론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성토에 들끓었으며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유리되었으며 재야민민운동 세력은 아시안 게임이후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군사정권의 타도에 앞장섰다. 2·7 박종철군 추도식과 3·3 범국민대회를 거치면서 민민운동 세력은 점차 결집력이 강화되고 내부적 역량을 다져나가게 되었다.

한편으로 야당은 보다 선명한 통일민주당 창당때의 온갖 협박, 회유등을 통한 정권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재야민민세력과 함께 대정권 투쟁에 나섰으써 전두환 정권은 두가지 선택이었던 내각제 합의개헌과 호헌중 결국 호헌이라는 카드를 선택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4·13호헌조치 발표에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든권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위협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전두환정권은 대학교수, 신부, 목사, 변호사, 대학원생, 의사, 약사, 그리고 연예인, 공인중개사까지 참여한 잇단 시국선언, 기도회, 단식투쟁에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할수 밖에 없었다. 4·13조치는 국민들에게 종이호랑이로 비쳐졌던 것이다. 잇따른 시국선언, 단식투쟁은 국민대중에게 뿌리깊은 반군부독재 의식에 따른 호헌철폐를 강렬히 인식케 하였다.

한편 80년대에 들어 등장한 레이거노믹스의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정부의 「고금리정책」「민영화 자율정책」「개방정책」의 3대정책하에 행해진 통화긴축정책에 의한 자본의 집적, 집중, 농민및 노동운동에 대한 물리적통제의 강화, 조세감면법 날치기 통과등은 대외적으로 예속성의 강화와 대내적으로 반민중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민중항쟁의 지역적 역량상의 불균형을 일정부분 불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80년이후 계속된 부실기업의 정리, 대형금융사고는 이에 따른 자본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였으며 6·10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발양사건」은 중산제계층들에게 독재권력의 하수인 공무원과 재벌의 결탁을 확인시키게 함에따라 전두환군사정권에 대한 반대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아울러 3저호황의 대내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12.7%)에 훨씬 못미치는 평균임금상승율(7.7%)은 경제성장의 몫이 민중에게 배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여 이는 광범위한 민중들의 진출의 경제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조건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을 계기로 광범위한 국민대중을 투쟁의 대열로 나서게 하였던 것이다.

3. 6월항쟁의 전개과정

김승훈 신부는 5월18일「5·18항쟁 희생자 추모미사」에서 박종철군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조작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군 고문치사사건의 조작사실이 발표되자 국민대중의 전두환군사정권에 대한 비난은 빗발치듯 했다.

이에 4·13이후 분출된 엄청난 분노의 열기와 저항의식을 통일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투쟁의 매개를 찾기에 부심했던 재야 민민운동세력은 5월23일「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규탄대회를 「노태우 승계식」이 있는 6월10일에 갖기로 결정 했다.

재야 민민운동세력과 민주당은 정국의 중대성을 감감하고 6.10 국민대회를 이끌 통일된 조직체로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를 5월27일 발족시켰다.

6월10일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에 의해 주도된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는 전국 주요 22개도시에서 24만명 (운동본부집계) 의 학생,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시위로 전국에서 3,831명이 연행되었으며 김종필 (외국어대·신방2) 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부상했다.

이날 시위는 운동본부가 예상했던 이상의 시민, 학생이 참가, 투석과 화염병 투척으로 결합의 최루탄과 폭력에 맞섰으며 주변의 시민들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6·10국민대회에서 주목할 것은 명동성당 주위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의해 명동성당에 몰려들어간 7백60여명의 시민·학생들의 농성사건이다.

10일밤부터 15일 해산하기까지 6일동안 계속된 명동성당농성투쟁은 비록 그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것은 아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었지만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6·10국민대회이후의 투쟁방침을 구체화시키고있지 못했던 재야 민민운동세력을 지속적인 투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청년학생들은 다음날에도 각 학교별로 출정식을 가지고 명동성당 농성지원투쟁에 나섰으며 명동성당을 핵으로 투쟁의 불길은 점차 번져나갔다.

15일에 다시 시위는 전국적으로 재현되었으며 18일 최루탄추방대회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름으로 정국을 위기상황으로 몰고갔다. 함간에는 계엄령, 위수령의 소문이 자자했으며 실제로 군은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위가 날로 확산되고 부상자가 속출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은 시위를 자제할 것을 호소하며 여·야 영수회담(전두환·김영삼) 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에서 「광주지역고등학교민민투」가 결성되고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는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에 부응, 6월26일 국민대행진의 연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이에따라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열기는 수그러든 추세였다.

청와대에서 전두환과 김영삼간의 회담이 당초 예상했던 바와같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나자 민주당은 회담결렬을 선언하고 다시 6·26 평화대행진에 적극 참가한다.

전국 34개도시와 4개군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 6·26 평화대행진은 경찰의 봉쇄에도불구, 1백만명의 시민·학생들이 참가하여 곳곳에서 대중정치집회, 토론회등이 열린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경찰은 16일동안 지속된 시위에 지쳐 있었으며 곳곳에서 투장해체를 당하는등 경찰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대중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자 미국은 당황했다.

사실 미국은 전두환정권의 강력한 물리력을 믿고 있었으며 이에따라 4·13호헌조치이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한 정치대화를 진지하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종래의 여야타협과 대화입장으로 복인하였다.

그러나 80년 광주항쟁이후 국민대중의 반군부독재전선이 반제전선으로 전화되어가는 것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6.10 민주항쟁이 폭발하자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되는 선에서 서둘러 마무리지으려 하였다.

결국 미국은 한국국민대중의 정치적 진출에따라 과거「조용한외교」속에 은폐되었던 모습에서 연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직설적으로 논평하는「콘소리외교」로 전환했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국민대중의 정치적 진출에따라「조용한외교」에서「콘소리외교」로 전환하였는데 그 변화의 현실이「6·29발표」였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이「6·29선언」이었다.

6월 민중항쟁은 변혁운동의 지역적 역량상의 불균형을 일정부분 불식시켜

6.29이후 구체적 투쟁방향의 부재로 선거혁명 의 환상속에 운동의 주도권 상실해

▲80년이후 투쟁의 경험을 결집시켜 대규모 반군사독재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그간의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통일적으로 수행하였던것은 커다란성과로 평가된다.

4. 6월항쟁의평가

1년이 지난 오늘 6·10민항쟁에 대한 평가는 6월민주항쟁의 자체평가와 함께 재야민민운동세력이 범했던 오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6월민주항쟁은 규모의 대규모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민민운동의 역량의 불균형 상태를 불식시키고 전국적 차원으로 무려 19일간 지속되었다. 전국 20~3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던 6월 민주항쟁은 주변 군단위 농촌지역까지 확산되어 나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민운동이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더우기 80년이후 투쟁의 경험을 결집시켜 가장 큰 규모의 반군사독재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그간의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통일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쟁취민운동본부는 6·29이후 목적의식적인 지도성의 부재로 정확히 투쟁의 방향을 상정하지 못했고 민주헌법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하는 민주정부수립에 이르는 구체적 투쟁방법이 없는 집행과 집행력의 부재로 그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6·29이후 정치적주도권이 보수야당에게 넘어감에따라 정치적 전망이 없이 동요하는 6월항쟁의 주체인 중산제계층은 보수야당의 선거혁명이라는 허위의식에 넘어갔다.

사실 이들은 민중해게모니에 의한 지도력이 허약함때 자신들의 이익을 부르조아들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하여 결과적으로 객관적 계급이익을 배반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6·29선언이후 언론의 왜곡과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해 6월민주항쟁에서 들었던 투장을 해제하고 지배계급의 진영으로 넘어감으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배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7·8월 노동자 대투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군사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감정에 휩쓸리는 비주체적 모습에서 그같은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❶ 질서를 지키는 사회

동부그룹의 기업정신은 질서·신뢰·사랑입니다.

낚싯대로 고기를 잡되 그물질은 하지 말고,
나는 새는 쏘되 자는 새는 쏘지 말라.
-論語에서-

남보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하고
남보다 많은 새를 잡기 위해 자는 새도 쏘려는
분별없는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자기에게 어울리는
부(富)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진실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채
토끼 둘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잡았을때
우리 모두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제「나」에 대한 이기심보다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있고
상식이 통하는 질서있는 사회를
생각할 때입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으며,
나는 새는 쏘되 자는 새는 쏘지 않는
의연한 마음과 자세를…

동부그룹은 한결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질서, 신뢰, 사랑의 그룹정신을 바탕으로
화려하지 않으나 알차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기업으로 철강, 건설, 화학,
무역, 금융, 보험, 전자, 운송등
각 분야에서 내실있는 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가고 있읍니다.

동부그룹

분단극복과 통일문화

〈마지막회〉

정 이 담

통일운동 속의 문화운동의 과제

문화운동은 분단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폭로하며, 통일운동의 과제에 복무해야

〈문화 평론가〉

Ⅰ. 통일운동을 보는 시각

운동권, 그중에서도 특히 학생운동권의 이슈가 종전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 문제에서 통일과 반미로 옮겨졌다는 분석이 보도된 바 있다。필자가 관찰하기로도 출해들어 학생운동의 슬로건은 거의 통일과 반미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다。그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일 것이라고 해아려진다。정세와 상황이 가져온 객관적 요구, 대중정서의 변화문제, 운동적 입장에 따른 강조점의 변화, 무엇보다 가장 민족적이고도 절박한 과제였으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통일문제의 전면화의 필요성, 그를 위해 필요한 반미와 분단이데올로기의 돌파력 확보의 필요성등등。하지만 슬로건 또는 이슈가 옮겨졌다고해서 또는 운동적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민주화와 민중 생존권의 문제가 역으로 소홀하거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민주화와 민중생존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된 채로 있기에 비록 그 역시 한계가 많은것이긴 했으나, 4·19이후 광범위하게 타올랐던 통일논의의 불길과 지금의 그것은 그러므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시의 통일논의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한때 타올랐다가 다시 사그러들고 만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주도층의 관념성이나 외세문제에 대한 인식 결여, 운동적 기반, 그중에서도 노동자계급 역량의 미성숙이란 조건등등。그러나 그때의 통일논의의 조건이 반드시 지금보다 못했다고는 볼 수없다。진보당을 필두로한 혁신세력의 광범위한 잔존, 어쩌거나 학생운동에 의한 참깜의 「승리」를 구가하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그리고 비록 냉전구조하에서였지만 지금보다는 오히려 민족적 이질화가 덜 진행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조건을 고려해본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당시 논의의 주도층이 그후 변질, 부함해 간 지각의 결과를 반드시 그들의 계급적 한계, 관념성, 불철저성, 전반적 역량의 미성숙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오히려 구호와 주장, 만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순진함, 그리하여 권력은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내걸고 등장한 군사쿠데타세력에게 이용되어 버린, 그래서 이후 지금까지 통일논의의 전면화를 꺼리게 만든 결과를 낳은 조급성, 그렇기 때문에 통일논의에의 지나친 집중화로 통일의 실질적 주역담인 민중세력의 발전에 소홀했던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통일운동에 있어서 문화운동의 과제를 논하는 글머리에 이렇게 장황하게 군소리를 늘어놓는 이유는 통일운동의 현실적 조건이 당위론에 밀려 소홀하게 취급되거나 통일운동이 전체운동의 또다른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를것에대해 경계하고자 함에서이다。(통일문화운동이란 용어 역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민족민주운동의 과제에 복무하는 것이 문화운동이지 그속에 통일문화란 영역이 따로 설정필수는 없다)

통일운동은 결대로 또하나의 부문운동이 아니다。조국과 민족의 통일은 전체운동이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하는 지상의 과제이다。통일운동은 또한 엄연한 현실적 한계를 안고있다。

통일은 분명히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지리적 통일을 의미한다。그리고 이통일은 양측의 합일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쪽에 의한 다른 쪽의 정복, 병합에 의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이런 관점에서 남한의 통일운동은 상대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개된다는 현실을 올바로 봐야한다。다시말해 통일의 당사자이며 중심역량인 남북한민중이 실질적 통일운동을 전개할 조건은 외세와 각자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박탈되고 있으며 외세와 양정권은 그리하여 통일논의를 독점하여 분단의고착과 연장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한의 통일운동은 통일을 구체적으로 이루려는 운동 이전에 통일을 논의 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운동이며 구체적으로는 그를 방해하는 외세와 정치권력에 대한 싸움으로 전개되면서 국민대중의 통일의식화, 민중세력의 통일담당역량 성숙화 그리고 제도 정치 세력의 통일정책 변화 압력으로 기능하게 된다。이렇듯 민주화와 자주화 민중생존권의 화보문제는 통일운동과 맞물려 있으며 따라서 통일운동은 새로운 부문운동인것도 반드시 자주화운동의 하위범주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Ⅱ. 문화운동과 통일운동

①**통일운동의 과제** : 통일을 반대할 자는 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조국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유는 흔히 생각하듯 통일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남북한을 통털어 그리고 정권과 민중세력, 혹은 전계급을 통털어 통일에 대한 시각과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의 통일 방해 작용은 소멸되고만다。이렇게 민족적·역사적·동질성을 기본토대로하여 통일에 대한 반대세력이 민족구성원내에 있을 수 없는 조건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과 입장과 방법론을 통일시키고 통일 이후의 합의된 미래상을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해작용하는 외세를 물아내는 것이 통일운동의 구체적인 과제이다。

②**문화운동의 과제** : 문화운동은 당연히 이러한 통일운동의 과제에 복무한다。남북분화교류니 정치적·경제적·지리적 통일과 무관한 문화의 동질성 회복이니 하는 주장은 그러므로 지극히 하위적인 발편에 불과한 것을 자신의 주된 과제로 해석하려는 문화주의적 발상이다。분명히 정치적·경제적·지리적 통일이 없이는 문화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분단이 문화의 분단을 낳은 것이지 문화의 분단이 분단을 낳은 것이 아니다。남북한문화의 이질화만 우려하지 말고 남북한의 분단을 먼저 우려하여야한다。

그렇다면 통일운동에 있어서 문화운동 자신의 고유하고 특수한 역할과 과제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바로 분단을 실질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분단이데올로기의 극복이다。일반적 과제로서 앞의 통일운동의 과제를 「문화적으로」(학술, 언어, 예술, 종교, 교육, 언론, 생활) 형상화해야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과제로서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분단하의 삶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통일논의에 대한 피해·거부의식을 제거하고 「통일은 바라나 안되도 상관없다」 든가 혹은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통일에 찬성한다」는 생활의식을 「통일이 되기전의 나의 삶은 온전한 것이 될 수없다」는 의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분단은 객관적·외재적 현실이면서 대중의 주관적·내재적 현실로까지 정착되었다。분단이데올로기는 즉 실체없는 환상이요, 유령이다。마치 인간이 귀신을 두서운 존재로 인식하게되면 귀신의 실체를 전혀 접하지 않고도 자연현상·심리현상을 귀신과 연관지어 두려워하듯이。

실로 이땅의 분단이데올로기의 만족편인 안보의식은 8·15이후의 좌우익 유혈투쟁, 동·서독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같은 동족상잔을 겪은 대만과 대륙중국 사이의 갈등과 대조된다。대만의 경우 반공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방과 대륙현실에 대한 왜곡은 없다고 하며 이점은 중공도 마찬가지라 하는데 남한의 경우는 과거 중공에 대한 비방과 왜곡은 반공사주의 정책에 따른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을 뿐 「침략자」인 「중공오랑캐」에 대한 증오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또한 반공국시가 아니라 통일국시여야 한다는 당연한 발언을 문제삼을 정도의 철저한 반공정책 하에서도 넉슨의 중공방문에 이은 중공과 대만의 지위바뀌에서 부터 「짝사랑」이라고까지 함정도로 중공에대해 호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뿐아니라 대만아닌 중공방문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공」의 논리하에 이견제시가 없는것은 이땅의 반공산주의 사상에 토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반공은 하나의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이용논리로써 형해화된 허깨비에 불과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북한정권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반공의 논거가 될때가 있는데 이는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문제이다。이점에서 분단이데올로기중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보의식이며 그것이 6·25체험을 겪지 못한 지금에 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분단구조하에서나마 정착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대중의 허위적이나 소박한 현실적 선택 위에 정당한 분배를 배제한 채 진행된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계층의 기득권 집착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통일에 반대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자신의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 생산과 시장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상 특히 6·25를 몸으로 겪은 세대의 체험의 산물이며 피해의식이다。즉 분단이데올로기는 반전(反戰)감정의 다른 측면이다。

일제하의 체험이 반일감정을 낳은것과 마찬가지인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그리고 냉전구조하에서 미국의 강요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는 커녕그에 결탁하여 권력을 잡은 이승만정권의 필요에 의한 반공산주의와 결합하면서 반전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한채 동족인 북한에 대한 증오로 변질되고 만것이다。이점에서 북한의 대중에 미치는 안보의식은 어떠한 감정을 낳았는지 궁금한데 아마도 남한의 반북한감정의 북한판인 반남한감정이 보다는 반외세, 특히 반미감정으로 나타나리라 짐작된다。

6·25체험을 그들은 그런 식으로 했을 테니까。이점에서 통·서독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같은 동족상잔을 겪은 대만과 대륙중국 사이의 갈등과 대조된다。대만의 경우 반공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방과 대륙현실에 대한 왜곡은 없다고 하며 이점은 중공도 마찬가지라 하는데 남한의 경우는 과거 중공에 대한 비방과 왜곡은 반공사주의 정책에 따른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을 뿐 「침략자」인 「중공오랑캐」에 대한 증오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Ⅲ. 분단이데 올로기 시론

(통일운동 속의 문화운동이 자신의 특수한"과제로 떠맡아야할 분단이데올로기의 극복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를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도에서의 원론적 접근이 필요하다。하지만 필자의 능력상 시론에 그침을 양해바란다)

남한에서의 분단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분단하의 삶을 선택하고 이에 만족하게 만들면서, 통일의 상대자로서의 북한을 거부하도록 기능한다。반공산주의나 안보의식은 분단이데올로기의 명시적·객관적 측면으로서 외세와 그에 편승한 정치권력에 의해서 생산되며 강요·주입된다。한편 분단이데올로기는 객관적 분단현실 하에서 대중의 의식내면에 침투하여 자기증식을진행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통하여 하부구조적 토대가 전혀없는 분단이데올로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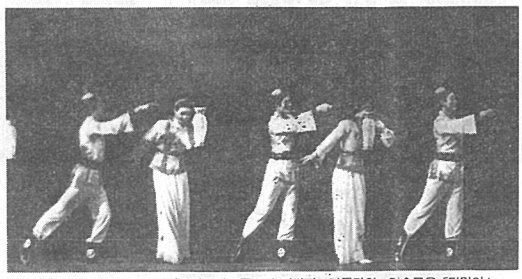
Ⅳ. 계속되는 문화운동의 임무

남한의 문화정책은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분단의 극복,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힘쓰기는 커녕 북한을 보는 시각의 왜곡을 선도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이 「고무·찬양」의 죄를 범한다는 논리는 하루바삐 분쇄되어야 한다。단연하건데 언어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얼을 보충이」가 아닌 「아이스크림」이다。북한이 국악기를 개조하면전통문화의 왜곡이고 남한에서 그리하면 현대적 개량화한 논리가 어렵게 성립할수 있다는 말인가。그들의 주장이 민족의 관점에서 맞다면 그를 수용하면 되고 틀리면 거부하는 것이 옳다。지배문화의 현실이야 워낙 그 문제점이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누히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한심해진다。

정권의 어용이 되어 반공과 안보의식을 직접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것은 물론이요, 외세문화에 발붙어서 민족문화말살에 기여하면서, 그리고 분단하의 삶이야말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대중에게 주입시키고 있을 뿐이다。연구와 표현의 자유획득 투쟁(이는 곧 통일논의의 자유확보 투쟁과, 연결된다)과 더불어 지배문화의 위와같은 「분단심」과 싸워나가는것은 그러므로 변함없는 문화운동의 몫이 된다。

한편 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와 결합하는 민주화·자주화·민중생존권의 확보 투쟁의 선전·선동역시 조금도 늦출수없는 통일운동속의 문화운동의 몫이다。



▲사진은 평양2·8문화회관에서 공연된 피바다 가극단의 민속무용「달맞이」

글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분단직전 한반도의 문화흐름
3. 한국전쟁후 문화의 이질화와 민중문화
4. 북한문화의 이해
   ①문화노선의 기본틀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②해방후 문화정책과 「문화혁명
5. 분단극복을 위한 문화의 새로운 논의
6. 통일을 위한 문화, 예술운동의 위상

문화 기상도

제9회 외대가요제 「벗이여! 하나되어 해방의 노래를…」이 서울캠퍼스 외대교내 방송국(FBS)주최로 2일(목)오후 5시30분 본교대강당에서 공연되었다。이번에 참석한 노래모임으로는 성대의 「소리사랑」, 한양대의 「소리개벽」, 이대의 「한소리」, 서강대의 「때박」, 서울대의 「메아리」그리고 본교 노래모임인 「새물결」이 참가하였는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찬조공연을 하였다。이번 가요제의 특징으로는 8회까지 일반 학생들 대상의 가요제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여 각대학의 노래모임작곡을 가지고 공연에 참가하였다는 점이다。 <글 : 조기원기자 사진 : 윤덕주기자>

유한킴벌리

너무 다른 기분!

재미없는 강의 들을때와
재미없는 강의 끝났을때와.

시험 보기전과
시험 마쳤을 때와.

샤워하기 전과
샤워한 뒤와.

팬티라이너 안한 날과
팬티라이너 한 날과.

너무 다른 기분!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여성들은 물론이요 아기들에도.
습한 기후의 분비물이 있어요.
후리덤 팬티라이너는 이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 필수품입니다.
팬티안쪽에 살짝 붙여두고, 화장에 사용한만큼 갈아주면
항상 상쾌하고 깨끗하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오텍스 후리덤* 팬티라이너

*표는 미국 킴벌리-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REGD. TRADEMARK KIMBERLY CLARK CORP. U.S.A

PRINTED IN KOREA, 1987 OCT

교수·강사진유치와 복지개선 모색

우수한 교수진은 대학의 생명

<마지막회>

Ⅰ. 글을시작하며

흔히 대학의 주인을 이야기할 때 교수·학생·교직원을 지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생들만이 부각되는 경향이었던것이 사실이다.그러나분명대학은 학생들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매번 열병처럼 치루는 「학원민주화 투쟁」에서는 늘 외대의 발전을 폐한다는 폭죽아래 학생들만의 외사에 편중된 요구 조건들이 주가 되어 왔었다. 간혹 교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 소위 「어용교수」 문제만이 표출되었을 뿐, 교수의 복지사항이나 부족한 교수진의 확보에 대해서는 빌다른 대책마련이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수대학이 되기위해서는 충분한 복지시설과함께 우수학생들을 육성해낼 우수한교수진의 확보가 가장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없다.

이에 본 기획에서는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거론되었던 우수교수진의 확보문제와 교수복지시설 개선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Ⅱ. 우수교 수진의 확보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라함은 전공학문분야뿐아니라 사회적 인격면에서 개인적으로 우수한 교수들을 유치한 개인집합체를 이루는것을 가리키는 말이외에도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학생지도의 역할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보장되는 교수단체가 확보된다는 말이다.

바람직한 교수와 학생의 비율은 학생 25인당 교수 1인으로 이 비율은 교수의 강의 이외의 역할, 즉 대사회적 전문인으로서 갖는 역할과 끊임없는 연구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요소이다. 이러할때만이 교수진은 연구활동을 포함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을것이며 다양한 교수진에 의해서 전문·전공 분야에 대한 직학하고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전문·전공분야의 적합한 강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학생들의 불만과 불신의 싹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종국에는 「어용교수」라는 문제로 발전되었음을 인식할때 최소한 공인된 연구실적에 의하여 전담강의가 개설되고 배당되어야할 것이다.

Ⅲ. 본교의 현황

본교의 교수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임이상(전임강사·조교수 정·부교수)의 교수가 총 3백여명으로 학생40인당 1인의 교수인 셈이어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과다한 학사일정에 얽매여 자신의 연구활동을 지속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전공분야에 있어서도 부족한 교수진에 외하여 무리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수의 전문영역에서 벗어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교수진의 확보가 대체로 어려운 특수어학과 계열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동·서양어계열 일부과의 경우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면서, 기초어학의 강의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그 대부분의 교수들이 언어학·지역학에 대해서도 연구 실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Sh어과의 경우 3명의 교수가 1백90여명의 학생들을 전담하고 있음을 볼때 교수·학생비율문제에선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교수진의 부족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구어계열의 경우는 외대만의 특수한 영역이라는데에서 더욱 특수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동구어 계열은 국내에서 볼 모지 갖았던 연구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내국인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플란드어과를 보면 교수 1인이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한 부족한 교수충원을 러시아어과의 교수 1인과 플란드인 신부 1인이 대신하고 있다. 플란드어과의 정병권 교수는 『내국인으로서 플란드어를 강의할 사람은 현재 국내에는 한두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러한 현상은 아니다.

◇사진은 지난3월말 교수연합회의 모임.

교수에대한 복지시설개선이 교수초빙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여건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교의 교수복지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지난2월 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분한 급여의 보장 △연구실의 고정배치및 시설·난방의 개선 △용인통근 버스의 배차 △용인직통전화의 이용편의 문제등이 크게 두드러져 나타났다.

먼저 급여의 문제를 살펴보면 타대학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연구비의 경우 올해부터 50%인상되었으나 수혜교수인원은 아직도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전체적인 급여의 인상률이 타학교에 비가진를을 신축하거나 땅구입 등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내의 연구소를 모두 학교근처의 일반건물로 옮기고 그공간을 부족한 연구실로 사용하자는 제의도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를위해서는 학교주변의 일반건물에대한 가격조사와 재단의 과감한 투자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의 경우 사무실을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어 여러 곤란을 겪고있다. 보직개편에 따라 매년 연구실을 옮겨야하는 불편은 교수의 연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직에 관계없는 교수 1인당 영구적인 교수실의 확보가 바람직한 형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용인캠퍼스의 보직 교수실의 경우는 학과장실과 사무실이 따로 존재해 큰 불편은 없으나 복지시설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크게 교통과 통신으로 대변되는데 통신의 경우 가장 큰 불편은 아직까지 수동식(공전식) 전화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외부로 전화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교수의 대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빠른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나 용인지역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심리적 불편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경우 서울지역의 전화회선을 수원까지 연장하여 서울지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같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용인캠퍼스내의 자동화시설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어서 부족한 전화회선의 증설과 함께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통시설을 보면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교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위해 용인에 출강하는 교수들을 위하여 아침 7시40분, 10시, 12시 한 교를 출발하여 장신을 경유하는 학교버스를 운행하고있으나 급한 볼일이나 여타 약속에 의해서 버스를 놓친경우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다.

이는 배차시간이 거의 2시간의 간격을 두고있기 때문이며 배차시간을 보다 단축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교통문제에 관한한 일반 학생들도 모두 공유하는 문제로 현재 지입제 버스3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역시 보다 많은 지입제 버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Ⅴ. 결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간략하게 나마 교수의 복지시설 개선과 우수교수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매우 미약한 논의의 차원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수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당국이나 학생도두가 소홀히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대학을 학문연구의 장이라 할때 교수들은 그 주인이며 그들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보해야 할 교수들의 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점은 큰 문제점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재단의 과감한 투자가 없이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다. 고로 재단의 과감한 투자와 교수들의 주인된 의식 속에서 중흥 외대의길이 열릴 것이다.

기획부

글 싣는 차례

Ⅰ. 시리즈를 시작하며
Ⅱ.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안
Ⅲ.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살펴본다
Ⅳ. 용인캠퍼스, 제2캠퍼스인가 분교인가
1. 행정체계 격상및 개선되어야할 복지문제
2. 제2캠퍼스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몇가지 방법
Ⅴ. 고전(古典)이된 커리클럼 전면적 수정을 요한다
Ⅵ. 교수·강사진유치와 이를 위한 복지개선

충분한 교수진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수 교수진 가능

강의, 연구활동, 대사회적 역할 담보를 위한 복지시설 미흡

야간, 전일제 수업 실시요구

학교측 문교부 승인후 내년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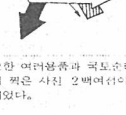
야간강좌 학생들은 전일제 수업에 관한 학교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6월1일(수)부터 시작된 수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이영동군(법학3)은 『작년 학원민주화투쟁과정에서 약속받았던 전일제수업에 관한 학교측의 확답을 듣기위해 결의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전일제수업은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며 『6월경 문교부에 건의해 10월에 확정통보가 와야 89학년도부터 전일제수업이 실행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순례반」 사진자료전 개최

「제2회 국토순례사진자료전」이 국토순례반 주최로 지난 5월30일(월)부터 6월2일(목)까지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용인캠퍼스 써클연합회 후원의 이번 전시회는 자전거, 헬멧등을 비롯한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여러물품과 국토순례를 하며 찍은 사진 2백여점이 전시되었다.



경기지역 사학과 학술제

8일(수),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제7회 경기지역대학 사학과 학술제 「만외세 민족자주 반침략 민족통일」이 경기지역 사학과 연합회 주최로 오는 6월8일(수) 오전10시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말의 의병항쟁」을 주제로 심포지움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학술제는 본교를 비롯한 경기대, 수원대, 한신대가 참가하며 심사위원과 일반대중 참관하게 된다.

본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제는 경기지역 사학과의 연대감증진과 학문적 이사의 재조명및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지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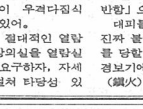
원천봉쇄

○…5월이 가고 6월이 음을「원천봉쇄」라는 말로 막아설 수 없듯이 한민족의 하나됨은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수 없어.

북으로 가건 남으로 오건 관문점 까지만 가자는 것인데, 사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인지 통일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그동안 꼭꼭 가려졌던 장막이 벗겨지면 신식민지의 음모가「원천 봉쇄」됨을 느꼈던 모양.

상(上) 것들이 주인을 를라보고 제속 막아선다면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방법을 해와도 용서하지 않을 터.

○…왕산골 각 써클실에 마련된 집기류가 하루걸러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는 괴이한 소식에 크로니클가 알아본 즉, 써클실 이전후 필요한 집기류를 학교측에건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각 써클인들이 주인없는 다른 써클실에서 「자체조달」하는 방법을 서로 개발해 날마다 비품들이 이 써클실 저 써클실로 「동체이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것.



공간제공만으로 해결됐다고 나몰라라하는 학교당국자들도문제이지만, 참된 대학문화 창조의 장(場)에서 도록바꾼 문화(?)가 웬말!

○…요즘들어 흡산들의 요구에대해 학교측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이 우격다짐식으로 치닫고 있어.

사법대에서 절대적인 열람실부족으로 강의실을 열람실화 해줄것을 요구하자, 자세한 조사를 걸쳐 타당성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타당성이 검증된 지금에와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발뺌을 하고나와 흡산들 기가막힌 표정들.

타당성을 논하던 자신들이 자기가 한말에 대한 책임은 커녕, 서슴없이 오리발(?)을 내미니심히 민망스러울따름이오.

○…며칠전 이문법 한강외동에서는때아닌 화재경보기가 울려 많은 학생들을 놀라게 했는데.

마침 수업을 하고 있던 흡산들 이성(?)을 되찾아 현명하게 대피를 하지않았고,결국 경보기는 「이유없는 반항」으로 밝혀져.

대피를 하지 않는 흡산들 진짜 불이났다면 큰「불상사」를 당할 뻔 했는데 흡산들의 경보기에 대한 불신을 진화(鎭火)하기 위해서라도 화재방지 기구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야 할 사(事).

○…왕산골 총학이 교통문제해결을위해 총 매진하는 요즘,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해 교통문제 해결사들의 깊은 한숨이 애처롭기만.

며칠전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승차한 몇몇의 예비역 흡산들이 승차표없이승차해 기사아저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물지각한흡산이 앞뒤가리지 않고 흡산으로 아저씨를 폭행(?). 운수회사측에서 사과를 하지않을시 차운행을 대폭줄이겠다고 엄포해 애매한흡산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판.

분명 「무임승차」「폭력」「행소니」는 「해국외대명예훼손죄」에 속하는 것이니, 괴흡산군! 하루빨리 자수하여 실추된 외대의 명예를 되살리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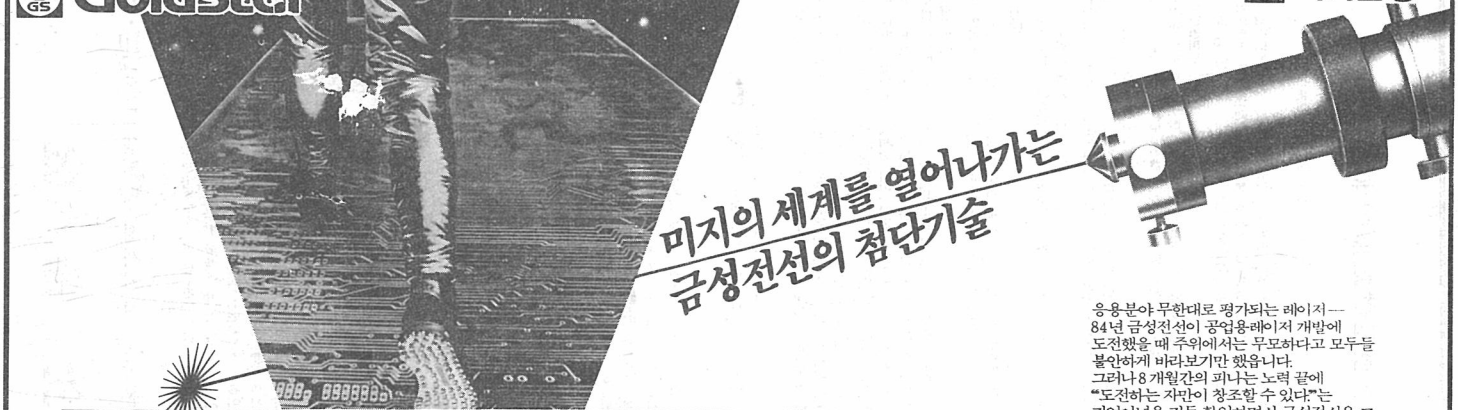
자수하여 명예찾자

테크노피아를 향한 최첨단 기술

GoldStar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미지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금성전선의 첨단기술

응용분야 무한대로 평가되는 레이저—
84년 금성전선이 공업용레이저 개발에
도전했을 때 주위에서는 무모하다고 모두들
불안하게 바라보기만 했읍니다.
그러나 8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도전하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는
기업이념을 거듭 확인하면서 금성전선은 그
개발에 성공하였읍니다.
광케이블, 초정밀기계, 꿈의 신소재 등
첨단기술 개발에 앞서가는 금성전선—
21세기 첨단기술을 우리 기술로 꽃피워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봉사하겠읍니다.

21세기의 기술을 앞당겨 실현하는
금성전선의 각종 첨단기술 분야

● 光관련 부문
광기술을 폭넓게 응용하여 광케이블과 광관련제품을 개발 공급합니다.
● 신소재 부문
형상기억합금과 GaAs화합물반도체 및 초전도체 등 신소재 개발에 앞서갑니다.
● 초정밀기계 부문
각종 정밀기계는 물론 레이저를 이용, 초정밀기계공업에 도전합니다.
● Local Area Network 부문
LAN시스템과 관련 H/W 및 S/W 개발로 자동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합니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전선(주)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럭키금성 트윈타워내)

미술계의 분단사를 뛰어넘어

◇미술계의 남북·월북작가 상황

문화시론

1. 남북, 월북작가 해금의 필요성

최근 문학계에서는 민족문학 논쟁을 더욱 승화시켜 민중문학차원까지 넘어 민중적 민족문학논의로 문학논의가 넓혀져 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문학계에서 고무적인 일로, 굳이 논의의 발전을 더들어 올리가면 카프시기와 분단기에(1945~한국전쟁시이) 문학논쟁의 활성화를 들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문학론과 프로레타리아 문학론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당시의 논쟁 (본보485호 참조)을 현시점에서 계급모순, 분단모순까지 발전시켜 문학운동의 새로운 질적발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정지용, 김기림등의 해금으로 문학계는 고민의 틀을 달리하며 계속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상식적인 논의를 앞서 펼친 것은, 문학계의 이같은 발전에 비해 우리의 분단이후 미술사는 아직도 적적연탈,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민중미술의 새로운 논의가 그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자(後者)의 경우는 「시각매체라는 특수성」을 가진 예술, 즉 쉽게 접할수 있는 장점으로 다른 어떤 예술운동에 비해 가중한 탄압을 받고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시민지시대 그리고 잘잔의 (?) 해방기에 남북·월북 작가에 대한 미해금을 들 수 있다.

이문제는 40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반공」 「국가 안전」이라는 미화된 현대 민중적 민족문학논의로 가려진 현대 미술사의 커다란 불행이 아닐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대 미술사의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인 남·월북 작가에 대한 분석과 제(諸)평가 문제를 미시적으로나마 살펴 보고자 한다.

2. 남북·월북작가상황

현재까지 밝혀진 남·월북 미술인은 약 45명 (확실한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태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각각의 장르별로 살펴보면 전통회화의 경우 이건영 (李建英), 이여성 (李如星) 등 6명, 서양화가의 경우 이쾌대 (李快大), 정현웅 (鄭玄雄) 등 35명, 그리고 조각가의 경우 김경수 (金丁秀) 이성 (李成) 등 4명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들모두가 우리 미술사의 개별장르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할수는 없지만, 당시가 현대미술의 도입기이고 태동기였다는 점과 미술사의 재정립이라는 당면과제에서 볼때 이들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당시 예술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미술수업자체가 일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학하였던 사람들이 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현대 한국 미술사에 아카데미즘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예를들어 정관철 김만형같은 인상파와 이쾌대, 윤자선의 표현파, 그리고 인상파의 최재적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이들이 활동하였던 조직을 살펴보면 동경미술학교 유학생의 독일회 (牧目會) (김용준, 김진섭등) 그리고 제국미술학교와 태평양 미술학교 중심의 백우회 (白牧會) (이쾌대, 김만형), 조선 신미술가협회 (최재덕, 윤자선등) 등이 있다.

또한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로 평양의 오월회 (五月會) (최연해등), 대구의 녹향회 (綠鄕會) (김주경등) 도 있다.

주지할점은 이들 단체이외에도 여러단체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단체는 학연, 지연등을 주축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예술운동이라는 경향적인 단체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점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논쟁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김진섭의「예술운동의 시기상조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진섭의 경우 「지금 조선의 회화예술에 있어—중략—예술적 사상운동의 정치적 색채라는 이른을 고집하는 혐동 혹은 일개단체의 주의주장을 표면화시켜 작자가 문화의식을 감조한다는 적극적 수단을 취해야 할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는 KAPF가 1927년 공개조직으로 방향전환 하면서 미술부가 생기고 (후에 이를 「미술동맹」으로 격상(格上))계속해서 독자적인 전문교육과 대기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좌·우익간의 논쟁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익작가의 경우 「민족미술이란 전통을 계승하여 그것을 어떻게 현대화 할것인가」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었고, 반면 좌익작가의 경우는 「민족미술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시각에서 전통을 계승하되 계급투쟁적인 시각을 첨가」하는점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작각의 논점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우익의 경우는 전통의 복고주의적 봉건성을 탈피하지못하고 있다.

반면 좌익의 경우는 KAPF시기에서부터 (1930년대) 민족미술운동, 기타 미술전반의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비평분야에서는 좌익계가 확실히 우세를 쥐고 있었다. 당시 비평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던 김용준, 김주경, 박문원등이 모두 좌익계 출신인 점을 보면 확연히 알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좌익작가에대한 연구논문은 거의없는 상황이고 남북작가인 임군홍(林群鴻)이나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예술인 자료는 비교적 많은 아이러니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예술사적으로 보아서도 식민지시대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저항운동을 한 예술인의 평가작업이 뛰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역으로 증명하는점이다.

4. 맺음말을대신하여

사실 남북·월북작가의 활동상에 대한 업적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이들에 대한 해금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도 이들을 해금(解禁)에서 제외할 법률이 (물론 유권해석으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평양미술학교에서 학과장을 하고 북한에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있다고 (정종여 (鄭鍾汝) 의 경우) 이를 반공 (反共) 이라는 말로서 묶어 풀수는 없는 것이다.

동구권의 여러 작가나 기타 사회주의권의 작가작품이 버젓이 공개되고 평론이되면서 어쩌 진정 같은 민족의 예술인을 밝기할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최근 미술계의 남북·월북작가에 대한 재평가의 주장은 분단극복을 위한 예술계의 당연한 주장이요, 역사적 당면과제인 것이다.

분단된 조국에서 44년인 긴세월을 지내온 현시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되고있지 못하는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려진 역사속에서 남북, 월북작가를 끌어내려는 것은 민족분단의 극복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정당한 주장인 것이다.

〈 문화부 〉

▲남·월북작가가 당시 북한에 머물러 있었던 미술계에 대한 탄압의 한방편이 되었다. 〈사진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정관여의 「모델」〉

남북,월북작가의 활동상에 대한 업적의 재평가시급,이들에 대한 해금은 더욱 중요해

신간소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고전입문 I
—안벨리제 그리제 외 지음
—윤정원 편역

이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및 레닌의 주요저작들을 일반대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입문 시리즈」중에서 엥겔스의 주요 저작인 「자연변증법」과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등 4편에 관한 해설서이다.

엥겔스의 저작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조건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속에서 차지했던 위치와 발전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거름펴냄 값3천원>

제국주의
—V·I 레닌 지음
—박세영 옮김

레닌의 논문 「제국주의,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단계, 일반적 개요」를 번역한 이책은 제국주의에 관한 경제적 본질을 중심적으로 다루고있다.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의 경제적인 조건과 제국주의의 성격과 역사상의 위치등이 서술되어있다. <과학과사상 펴냄 값2천2백원>

문화단신

제2회 민중문화의날
—민중문화운동연합 주최

제2회 민중문화의날 행사가 오는 6월11일 (토) 오후7시부터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민중문화운동의 그동안의성과점검과 대중적인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6월과 민중항쟁」에 대한 박계동씨의 강연과 노래극 「평등의 땅」이 공연된다.

▲문의처 : 민중문화운동연합 718—5396

문학상공고

제26회 외대문학상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은 소설, 시, 평론, 번역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희곡」부문을 모집하려 합니다.

▲마감 : 추후공개
▲문의 및 제출장소 : 본보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 203호
용인 : 학생회관 212호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당선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친구여! 내편지 보게나

수필

이 동 철

〈동양·인도어2〉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간 몸 건강히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날달리 길게 느껴지지 않은걸 보니 아직도 작년의 6월에 미련을 두고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

새삼스레 작년 이맘때 자네와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네.

아침에서 저녁까지 교박 거리위에서 방황감각을 찾지 못하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면서도 꼭 무엇이 이루어질것처럼 설레임으로 보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

아침에 학교에 오면 과총회, 출정식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지만, 하루 한끼만을 먹고 배고픔을참아내며 하루를 보내면서도 기쁨과 설레임으로 6월을 보냈었지. 사실 그때 우린 목이 터져라 외쳐대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리편의 단결된 민주화외지 그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린 기쁨에 눈물을 흘렸었지 하루가 멀다하고 거리로 거리로 헤매이면서도 불평하나없는 걸 보고 이게 형동사회고 공동체구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네.

아마 우리 뿐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이가 이제 좋은세상이 올거라고 또 통일이 필거라고 기대에 찼었지. 그러나 우린 큰실수를 하나 했던 것으로 생각하네. 6월 한달동안을 싸우면서도 6·29의 한마디에 모두 기와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져버렸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6·29의 환상을 가슴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필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부풀의 꼬삐를 늦추고 있었던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우리가 얼마나 낭만적인 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나자신이 부끄럽다네.

그이후의 삶속에서 나는 매우 빠아픈 좌절과 악몽에 달려 왔다네. 몇몇친구가 가끔 가다 모이면 매일 토론을 한 답시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부정경기 한답시고 선도적인 정을 발기한 것이 그간의 우리 모습같기 때문이라네.

「논의는 짧게 실천은길게」라는 누군가의 명언이 간절한 시대에 우리는 들뜨지 않은 마음으로 이를 악물며 또다시 6월10일을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 할걸세.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작년 6·10의 환상에 사로잡혀 대조집에서나 포장마차에서나 지난6월에있었던 무용담을 즐기고있으니 우리들의 나약한 심성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네.

이제 작년 6·10의 환상에서 깨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또다른 열정을 불고 오지 않겠나. 자네와 술잔을 기울이며 했던 그 수많은 말과 꿈것을 이제 실천으로 옮겨 보세나. 작년 6월10일을 해 또다시 6·10의 큰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봉화를 높이 올리도록 하세. 이제는 두눈 부릅뜨고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 곁에는 함상 함께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작년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도록 하세. 이제 밤이 깊었네.건강에 유의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속으로 진군하는 새세대를 위해 힘껏 민주를 외쳐보세.

임진각, 그리고 판문점. 근일 (近日) 에 자네와 내가 우연히 마주칠 장소가 그곳이라는 생각이 드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네. 잘 있게나.

1주년의 새날을 맞으며.

논의는 짧게 실천은 길게하며
이를 악물고 6월을 맞이 하세

반단조국 44년월5일과 조선일보 15면

6·10회담추진 학생35명수배
울산 현대정밀공업 직장폐쇄
현대하청업체 7백명 생존권보장 궐기대회
한 밤 때장도 4명 주인을 발로 목을 밟다 죽이고
인천—근로자 대학생 「구속자 석방촉구」시위
노 모교수 발언에대해 5·18동지회 성명, 광주 노인 1백명 농성
10층옥상에서 성폭쿠진 비관 여고생 또 자살
5층 옥상에서 송실대 국문 3년 박래전 25세 분신 기도
민족 화해 목적 전대협대표 회견

우리가 알고 알린것에 책임을 지기위하여
우리가 믿고 기다린 것에 생명을 걸기 위하여
내뿜는 담배 연기는 향인듯 퍼져
박래전 혈의 혼인듯 다시 내음에 스민다.
범원으로 향한 구급차속에서 그가 한 마지막 말
『학생들이 이기주의와 안일에 빠져있다』
애도의 눈물은 메마른 가슴으로
신음이 도리어 목젖을 흔들며 올라온다.
15면의 3분의 1을 채울만큼 비중있는 광고탑
백일섭이 비틀어진 입으로 웃고있다.
속 쓰림엔 역시 미란하.

홍 기 복

〈사범·한교3〉

우리말의 쓰임새 (143)아니꼽다

<식모방에 들어와서 판을 치다가 요새 와서는 갑히 대갑님 밥에까지 침범해 들어왔으니 아니꼽기는 것이다. 김성한의 단편소설 「풍파」 중에서> 아니꼽다는 비위에 거슬리어 구역질이 날듯하다, 또는 갑갑은 언행에 불쾌함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매우 아니꼽다는 「아니꼽살스럽다」이다.

매우 아니꼽다를 한마디로 익혀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 명 서

6·10남북학생회담 성사시켜 조국통일 앞당기자

순결한 조국 한반도, 외세의 침략아래 남북으로 분단된지도 어언44년이 지났다. 5천년을 하나같이 살아온 우리민족이 해방과 함께유입되기시작한 외세의 극단적냉전논리와 이를 기반으로한 분단 고착화, 또한 폭정의 악순환속에서 민중의 통일염원은 억압과 획일화되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허나 분명한것은 억압과 분단이 강요될수록 우리의 반독재투쟁과 자주적 통일 의지는 더욱 강고해져가고 있으며 새벽을 고하겠다는 대학사회의 극악한 군사적, 경제적, 이데올기적 침략은 좌경·용공이 아닌 자주 미제와 군사독재 정권은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외면하고 온갖 반통일적 장애를 구축하고 분단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단의 통한과 지난한 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있던 우리 청년학도들이 통일의 선봉임을 각히 선언한다. 이제 더이상 청년학도들은 통일논의의 변두리에서 서성일수 없고 더이상 통일의 주도권을 독재와 외세에 맡겨둘 수는 없다. 분단상황을 이용하여 정권을 연장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켜 국민들에게 반북·반공을 부추기는 현 군사독재정권에게 더이상 부역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남북한 어느쪽에도 도움이되지 않는 동강난 한반도의 현실, 이러한 식민지 한반도의 청년학도, 민중들이 조국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다.

이러한 한반도 청년학도의 치열한 조국통일운동에 대학신문 역시 예외가 될수는 없다. 분단조국에 살고있는 청년학도로서의 역할과 통일논의를 학생대중과 일반 국민들에게 선전해야하는 임무를 갖고있는 대학신문기자들은 분단 조국 44년을 기필코 통일 조국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회」산하에 23명으로 구성된 「6·10남북학생회담 취재를 위한 공동기자단」을 구성하였다. 이번 공동기자단은 통일의 한주체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청년학도들의 부정모습과 관문점에서 전개될 남북한 청년학생들의 하나된 모습을 취재할것이다. 이후에도 대학신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이땅의 자주화를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6·10 남북학생회담 취재를 위한 공동 기자단」은 통일논의 일주체로서 자리할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一.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남한의 단독 올림픽을 거부하고 북한이 공동올림픽을 개최할 것을 주장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화해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현 「6·10남북학생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통일논의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一. 「6·10 남북학생회담」을 비롯한 광범위한 통일논의의 진행에 있어 정부측은 통일을 향한 청년학도의 뜨거운 몸짓을 인식하고 보장하고 방해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一. 「6·10 남북학생회담」의 개최를 위한 제반활동을 방해하는 정권에게 개최 경위, 용공으로 매도하고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면 현 정부를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무한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폭로해 나갈것을 엄중 경고한다.

一. 기성 언론들은 「6·10 남북회담」을 보도함에 있어 지난날의 관제언론의 모습을 극복하고 보다 공정하게, 나아가 통일논의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보도의 자세를 견지해 나갈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一. 청년 학도들은 허리잘린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하나된 몸짓으로 반외세 민족통일의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一. 88올림픽에 즈음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반공·안정논리속에서 광주민중학살원흉 처단과 양심수 전원석방은 결코 유보할수 없으며 이는 이땅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一. 북한과의 문화, 자료 정보교환을 위한 남북학생 기자단 교류를 북한측과 6·10 남북학생회담 남한 준비위에 요구한다. 또한 한생기자단 교류를 위해 23인의 공동기자단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一. 우리 「6·10 남북학생회담 취재를 위한 공동기자단」은 이번 취재에 임함에 있어 분단조국의 질곡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진실보도를 약속하며 이를위한 실천적 노력 저지되는 일이 없도록 자유언론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것을 다짐한다!

통일염원 44년 6월 5일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